



CONTENTS

1

동행프로젝트 소개?

동행프로젝트란?	동행프로젝트란? 006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체계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체계 006
동행 봉사활동 개요	동행 봉사활동 개요 007
동행 참여방법	수요처 008 대학생 010

2

대학생 동행 봉사활동 수기

잠실여자 고등학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014
천왕초등학교	다시 만난 우리!! 하이파이브!!! 016
위캔지역아동센터	봄처럼 다가와 삶이 되다. 018
서울 월곡 초등학교	우리는 돌봄3반 5총사 020
광양고등학교	영하야 고마워 022
한국우진학교	동행의 중도 포기 자에서 완주자로의 도약 024
서울경운학교, 은평대영학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그들과의 시간 026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특별한 만남의 즐거움에 취하다! 028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심은 먼지같이 소소한 대화에서 030
이태원 초등학교	꽃밭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032

3

대학생 동아리 동행 봉사활동 수기

동행 봉사활동	자장면 한 그릇 036
너와 나의 힐링캠프	너와 나의 힐링캠프 038
한국우진학교	나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있던 나.. 040 '동행' 을 통해 색안경을 벗게 되다..
청덕초등학교	전분가루 묻허가며 피어난 꼬마들과의 우정 042
중앙대학교 소모임	흑석동에서 열린 한마당 축제 044
광운대학교 동행 소모임	난? 난 꿈이 있어요. 046
덕성여자대학교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때 048
홍보기획단 6기	나를 바꾼 홍보기획단 050
화곡지역 아동센터	기쁨을 주고받는 나의 봉사활동 이야기 052
길음중, 재현중	Do-with(함께 하다) 054

4

관리교사 동행봉사활동 운영 수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힘든 농촌 봉사도 다 같이 땀 끝~ 058
교과목학습지도	자신감의 시작! 동행 프로젝트! 060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	엽집 할아버지, 할머니 062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나눔이 더 행복해요~ 064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066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행복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 068

5

관리교사 동행봉사활동 운영 수기

신당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당신이 내 민 그 따뜻한 손 072
한국우진중학교 교사 박은주	세상의 낯설음이 따스함과 그리움으로 074
	변하는 곳동행
경동고등학교 교사 고종애	동행으로 맺어진 가족들!!! 076
리라아트고등학교 교사 윤민경	모두가 행복한 동행 080
신광여고 교사 김지민	“동행프로젝트 최고의 동생행복도우미!” 082
용답초등학교 교사 이아람	인생의 힘이 될 기회 : 동행 086
	(살면서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 조예진	날개 접은 천사의 선물 “괜찮아, 연습이야” 088
대청중학교 교사 방유정	동생행복을 넘어, 090
	대학생, 선생님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눔의 실천
	(원!원!원!하는 동행프로젝트)
송파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동현	시간이 남긴 기억이 미래를 바꾼다. 092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교사 박정재	나의 꿈 093

동행프로젝트 소개?

6

2013 사업보고서

2013 사업보고서	2013 사업보고서 098
------------	----------------

동행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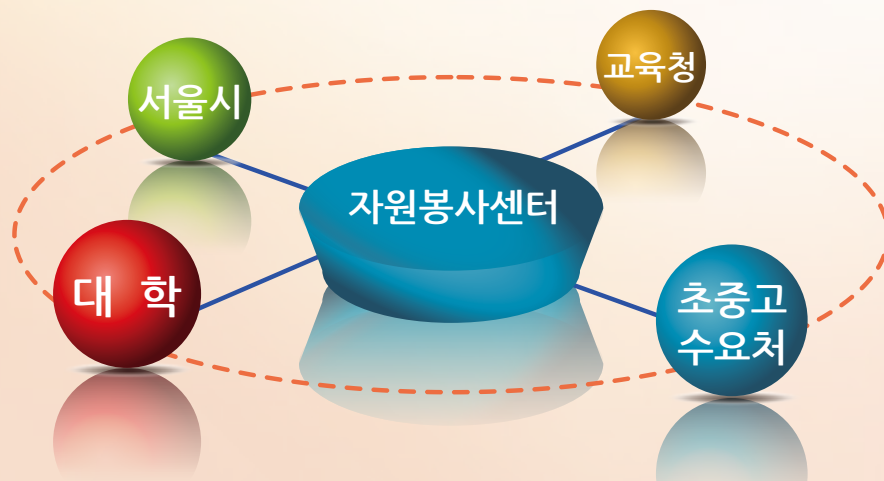
동행프로젝트란? /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체계
동행 봉사활동 개요



○ 동행프로젝트란?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봉사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재능 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봉사활동

○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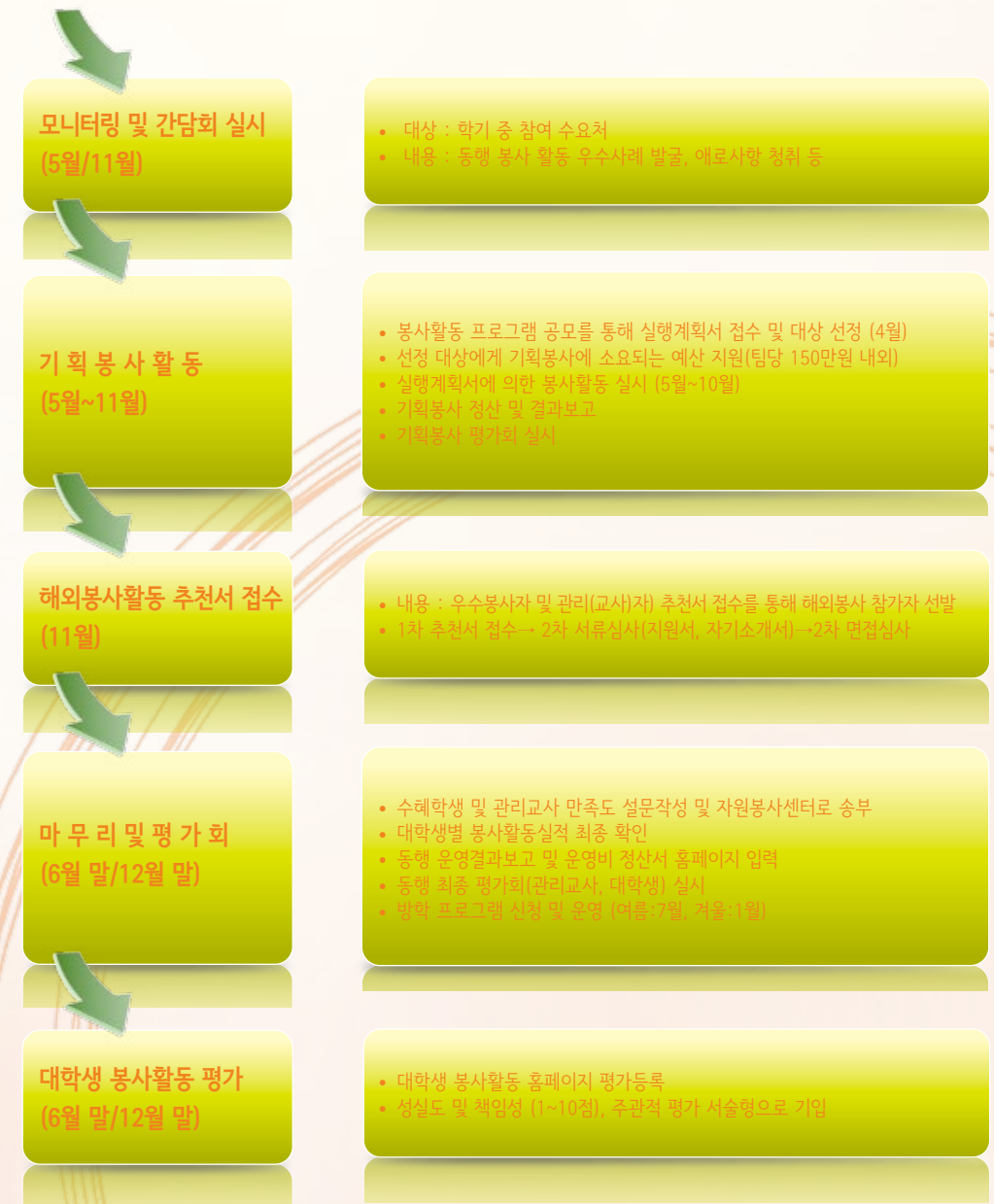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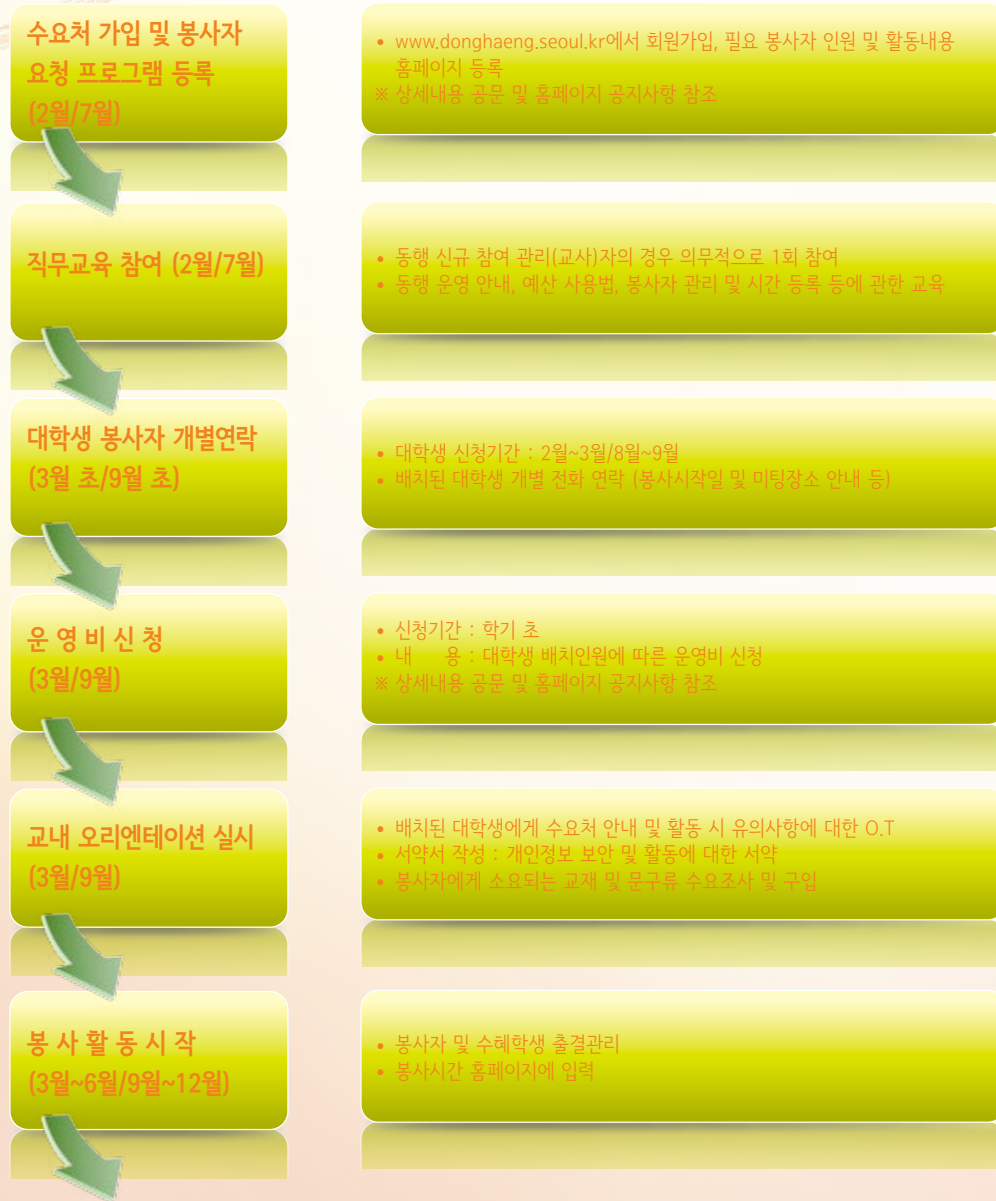


○ 동행 봉사활동 개요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 주 관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운영시기 : 학기별 운영(1학기:3~6월, 2학기:9월~12월),여름 및 겨울방학
- 참여자 :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 수혜자 : 서울소재 초·중·고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의 소속학생
- 활동내용 : 7개분야 16개의 프로그램

활동분야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사례
교과목 학습지도	국어, 영어, 수학, 기타	-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 활동 - 학습의욕과 동기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업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 및 지도 등
특기적성	음악, 미술, 체육, 독서지도, 기타	- 특기적성 및 예체능 활동지도 (예 : 음악, 미술, 체육,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밴드 등) - 독서지도(책 읽기, 논술, 토론 등)
체험학습	체험활동보조	- 체험활동 준비 및 진행, 해설과 안내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되도록 지도교사 지원 ※ 체험학습지원의 경우 별도 운영비 지급 안 됨
기초학력 향상 지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해당 프로그램 진행 요건 사항을 충족해야 함(프로그램 세부설명 참조)
초등학교 돌봄교실	숙제도와주기 및 신체놀이활동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 집단 활동지도 및 보조 (ex. 실내 외 게임지도 등) - 돌봄교실에서 숙제지도, 부진학습 보충지도, 간식 준비, 놀이와 휴식시간 지도 등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숙제도와주기 자기주도학습 문화체험	- 개별 또는 그룹 학습지도 - 자기주도학습 지원 - 문화체험활동 보조
공모사업	기획봉사활동	-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로 교육,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활동 - 대학생과 관리교사가 한팀을 이뤄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 연 1회(4월) 공모사업으로 진행

○ 동행 참여방법 | 수요처



○ 동행 참여방법 I 대학생





대학생 동행 봉사활동 수기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양혜완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암 투병과 함께 했기에 산다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무의미했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내버려놓은 세상을 원망하며 눈을 질끈 감고 다신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곤 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했던가. 떨어지지 않는 지독한 감기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보내고 이십대 중반에 서니,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시기가 그리워, 때로는 그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특히 하고 치면 울음 터뜨릴 것같이 예민하고 어려웠던 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도 정신적인 멘토가 있었더라면, 학창시절 그 순간도 나의 삶이며 ‘노다지가 노다지인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밝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곤 했다. 그래서 훗날, 대학생이 된다면 멘토링 교육봉사를 해서 진정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리라 결심했었다. 꼭 해보고 싶었던 교육봉사이기에, 동행 봉사활동 기본교육은 일찌감치 이수 받았지만 막상 대학생생활을 하게 되니, 이론수업과 병원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과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나는 성적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였던 것이다. 올해 4학년 2학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름방학 맛이 대청소를 하던 중, 고등학생 때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일기장 속에는 <대학가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나같이 어려운 동생들한테 교육봉사를 하고 싶다.’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취업하고 나면 이런 교육봉사는 평생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졸업 전에 할 수 있는 일, 긴급하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 유의미한 일을 해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봉사 신청을 했다. 혹시나 바쁜 일정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 신청에 있어서 신중했다. 마음먹은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 같다.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먹고 실제로 교육봉사를 하는 데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잠실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학습을 돕게 되었다. 지도학생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믿는 초롱초롱



선한 눈망울로 내 말에 귀 기울였다. 나 또한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어른아이’인데, 그 시절에는 20살이 넘으면 엄청나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도학생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도울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다. 지도학생의 영어단어 수준에 맞춰 중학생들이 보는 책을 외울 수 있는 정도여서, ‘언제쯤 이 책에 진도를 다 뺄 수 있을까’ 조바심도 들었고, 처음부터 학습 부담을 주면 공부에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학창시절에 방황하느라 남들보다 1년 더 대입준비를 했는데,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조차도 잘 몰라, 하루에 10시간씩 울면서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있다. 학생의 능력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주중에는 매일 100단어씩 외우게 하고, 카카오톡 메

신저를 통해 단어시험을 보게 하였다. 또한 주중에 틀린 단어들을 정리하여 토요일마다 잠실여고 스터디 룸에서 재시험을 보고, “고2포스 EBS영어독해 연습”이라는 책을 잠실여고로부터 지원받아, 영어 직독 직해와 문제 유형별 리딩 스킬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나의 진정성이 통한 걸까. 내가 애정을 갖고 믿고 격려하는 만큼 학생은 나날이 성장했다. 예전에는 단어 10개를 틀렸다고 하면, 요새는 많아도 세 개를 넘지 않는다. 또,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학생이 이젠 시간을 주면 느리지만, 정확한 해석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도록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가 자식이 걸음마를 했을 때의 마음과 같이 뿌듯하고, 나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도학생에게 귀감이 되고자,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샘솟는다. 나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만큼, 일본일초에 생사가 오고가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임종을 겪다보니, 죽음이란 것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짐승은 죽어서 고기와 가축을 남긴다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남기는 걸까? 현실에서 나, 내 가족, 내 사람 지키기 급급하고, 생리적 욕구인 먹고사는 것에 급급해 봉사라는 것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함께 할 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나의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불우했던 나의 학창시절로 돌아가 ‘과거의 나’를 쓰다듬으며 힐링하는 체험을 했다. 사실상 지도학생을 돌보는 것 뿐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던 셈이다. 토요일마다 지도학생을 만나 학습을 마치고나면, 고등학교 시절 당시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준다. “좋은 대학교에 간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니 행복을 유예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행복하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홀린 맘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학생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송파역 1번 출구를 걷는다.



광운대학교 법학부 4학년 박찬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2013년으로 돌아가야겠다. 2년 동안에 휴학을 마치고 2013년에 학교로 돌아오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 ‘활동적인 걸 해볼까?’, ‘자매 결연을 맺어 금전적 지원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움직여 볼까?’ 등 마음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움직임의 갈망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순간 3월 초 즈음해서 학교 게시판에 하나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동생 행복도우미’ 줄여서 동행! 그러나 바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주위에 동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과연 내가 주기적으로 안 빠지고 참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일부러 금요일엔 이 다짐을 쓰기 위해 공강을 잡아놓고, 지금이 아니면 정말 실천을 못할 거 같다는 마음에 바로 가입을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였다.

기본교육을 마치고 우선 집 주위의 학교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우선으로 기준을 세운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좋아하거나 친척동생들도 잘 따른다는 자신감에(사실은 중, 고등학교 수업을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천왕초등학교 3학년 샘반 수학 교과목학습지도와 체육 특기적성을 신청하였다.

드디어 첫 날, 사실 떨렸다. 그리고 많이 떨었다. 내색은 안 했지만 한참 어린 동생들 앞에서... 게다가 무슨 자신감? 오기?가 생겼는지 3학년 샘반 전 시간에 3학년 들반도 하겠다

고 했다. (다른 동행 참가자가 갑자기 참여를 못하게 된 것 같았다) 결국에 나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왕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

3학년 샘반 동생들과 첫 만남! 담임 선생님과 인사 후에 학업이 조금 부족한 동생들 위주로 반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동생들과 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만 흐를 뿐 서로 먼저 다가오고, 다가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 특기적성 첫 시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 내가 형, 오빠고 선생님인데 뭐하고 있냐며, 이럴 거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나서지나 말 것이지..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참여하자고 다짐한 거 그 누구보다 좋은 형, 오빠가 되고 열심히 참여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두 번째 날! 천왕초 교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무조건 이름을 먼저 물어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시행에 옮겼다. “넌 이름이 뭐야?”, “짜꿍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다가가었다. 또 한가지 더! ‘하이파이브’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날 때 정말 많이 하는 것이다. 경험상 어색함을 풀거나 친해지기 위해 정말 좋은 행동이다. 그래서 나는 동생들이 문제를 풀거나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 질문을 할 때에도 나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동생들은 처음에 “뭐지?” “왜이래?” “불쌍해서 해준다”는 표정들로 응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도 높여가고 먼저 손바닥을 올려주는 동생들이 생겨났다.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제는 동생들

이 나의 별명까지 만들어주었다. 주로 생김새가 비슷한 ‘마이콜’, ‘하하’ 같은 것인데 동생들이 “끝까지 닮았다”고 우기면 나는 “내가 더 잘생겼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우리의 친밀도는 점점 더 깊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 바로 점심시간이다. 나는 오전에 나와 오후 3시까지 참여해서인지 학교의 편의로 중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 점심시간 역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순으로 줄을 서는 샘반의 특성상 나 사이에 놓기 위해 예약제까지 생겨났다. (어디가서 이런 인기를 맞볼 것인가??) 또한 긴 식탁에 주욱 앉아서 담임 선생님 물레 김치나 나물 반찬을 먹어주는 비밀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1학기는 지나갔고 나는 동생들과 2학기에 또 만나자며 ‘하이파이브’와 함께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드디어 2학기 봉사신청 기간이 왔다. 하지만 난 걱정이 없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나는 이미 6월 달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나는 샘반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놓고 언제쯤 신청하는지, 신청을 하시면 바로 봉사 신청을 하겠다는 연락도 해놓은 상태였다. 2학기 첫 날, 동생들과 나는 전혀 어색함 없이 ‘하이파이브’로 시작했다. 심지어 달려와서 업히거나 안기는 귀여워 죽겠는 동생들까지 생겨났다. 정말 하나같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다. 게다가 2학기에는 수업시작 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으로 나가서 발야구, 피구 등을 함께 하며 서로에게 큰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다. 역시 이때에도 우리의 ‘하이파이브’는 빠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 그리고 나도 2014년에는 4학년이 된다.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내년에도 또 보자는 동생들의 물음에 나는 ‘하이파이브’는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내보겠다는 대답밖에 못했다. 결국 나는 2014학년도 1학기 동행 신청을 하지 못했다. 굳이 별명을 한다면 나의 진로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는



시점에 나는 동생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3학년 샘반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다. 혹시 건희(유독 나를 따르던 동생이다)는 4학년 몇 반인지, 선생님께서 4학년을 맡으시는지 여쭙었다. 다행히 선생님은 4학년 들반을 맡고 계셨다. 아쉽지만 건희는 옆 반이었고 옆 반은 동행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3학년 들반, 4학년 들반, 스포츠 반 특기적성까지 다시 금요일의 천왕초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2013년에 다 같은 반이 아닌 우리지만, 2014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4학년 들반이 아닌 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역시 ‘하이파이브’는 까먹지 않고 있었다. 스포츠 반에는 작년에 만난 4학년 동생들이 5학년으로, 3학년 동생들이 4학년이 되어서 참여하였다. 새로운 동생들도 있었지만 특유의 ‘하이파이브’로 쉽게 친해 질 수 있었다. 덕분에 좀 더 많은 동생들의 손바닥과 나의 손바닥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감촉은 정말 모를 것이다. 운동할 때? 응원할 때? 아니! 이젠 우리들의 손바닥 소리

다. 다시 만난 우리만이 아는 우리의 ‘하이파이브’다. 물론 이 ‘하이파이브’가 멈추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고 여건만 된다면 지금의 3학년 들반, 아니면 내년의 5학년이 되는 동생들과 다시 한 번 손바닥을 마주 칠 수 있을 것이다.

동행을 하면서 내가 알려주기보다는 동생들에게 배웠다고 생각한다. 다짐을 실천에 옮기면 이렇게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동생들의 행복도우미가 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된 것 같다. 생각해보니 아직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은 사진을 담지 못한 것 같다. 이번 학기 동행을 마치고 전에 동생들과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을 남겨 앞으로 그림거나 아쉬울 때 꺼내봐야겠다. 천왕초등학교 동생들아! 마이콜 쌤, 하하 쌤이 정말 사랑해!!!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상명대학교 영어교육학과 3학년 한승희

봄. 내게 있어서 봄은 시작이고, 설렘이고, 두려움이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시작한 ‘동행’ 또한 내겐 그랬다. 교육봉사를 손에서 놓은 지 3년이 흐른 때였다. 고등학생 시절 몇 년을 걸쳐 진행했던 초등학교 방과 후 놀이지도를 통해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또 많이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봉사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교육봉사는 나보다 어린 동생들과 ‘인연’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그만두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에 다시 봉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분명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졸업을 위해 교육봉사는 필수적이었다. 넉넉하게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동행’ 프로그램을 찾았고 난 ‘위캔지역아동센터’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한 명, 한 명 결눈질을 통해 너희들, 그러니까 새로 생긴 내 동생들의 이름을 외었다. 집에 와서는 일기장에 오늘 외운 이름을 적었다. 까먹지 않도록 이름 옆

에 생김새와 특징도 그려 놓았다. 설렘이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 날 ‘선생님’이라 부르는 너희들이 생긴 것. 모두다.

그러나 시련은 금세 찾아왔다. 소통의 벽을 만난 것이다. 고학년들은 그나마 나았다.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래도 날 잘 따라줬으니까. 그런데 저학년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 난감했다. 위험한 행동을 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왜 하면 안 되는데요?”라는 대답이 따라왔다.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나온 매뉴얼을 보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교육법을 적용해보기도 했다. 아동심리학 책을 보며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행동하는지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밖에 안된 나를 ‘선생님’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규칙을 만들고, 타협점을 찾고, 선생님과 제자로서 예의를 지키게 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너희들 앞에서 나는 선생님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일기장에 몇 장째 ‘선생님으로서의 다짐’과 ‘어떤 자세

로 동생들을 대할지’에 대해 쓰고 난 때였다.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당황시키는 말을 하곤 했지만, 그래도 이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너희를 대할 수 있었다. 새 학기의 두려움은 친구들과 친해지면 금방 사라지듯 너희도 서서히 내게 익숙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 센터의 거의 모든 동생들과 친해졌을 때 센터에서 가볍게 캠핑을 간 적이 있다. 이들에 걸친 활동은 더 이상 봉사자의 영역이 아니어서 굳이 갈 필요가 없었으나, 너희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던 나는 먼저 손을 들어가겠다고 했다.

사실 약간 걱정도 있었다. 몇 번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직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걱정은 잠시였다.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너희들은 함께 밤새 캠프파이어를 하자고 졸라왔다. 솔직히 많이 놀랐다. 나를 그 정도로 친숙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너희는 내게 말해주었다. 선생님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차별 없이 대해 주는 게 좋다고. 그 말이 가장 기뻐다. 내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선생님이 학생을 차별대우하는 선생님이었기에 동생들을 대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모두 하나같이 예뻐서 차별을 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었지만, 너희들은 또 내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 주기도 했다. 너희가 물어본 것에 답도 해주고, ‘센터 내에서 학생들끼리 지낼 때 다툼이 있다면 서로 더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 어쩌면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는 내 말에 수긍해주었다. 껍껍하고, 즐겁고, 졸렸던 그날 밤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조금씩 바뀌는 너희 모습을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하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 변해가듯 나도 너희를 만나 많이 변했다. 학기 중에 진행 된 ‘동행’ 봉사는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복수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을 꼭 채워 들었고 수업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있었다. 또한 평일에도 돌봄 교실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말까지 센터에 가야하는 것이 정말 무리인 것 같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때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들

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날 따라주는데, 조금 하다 그만두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시간을 다 뺏겨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다. 내 힘의 원동력인 너희들이 욕먹게 만들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중간, 기말, 과제, 출석까지 완벽히 해서 다전공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 입학하고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예전의 나였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처음 너희들 만난 날 썼던 일기를 열어본다. 너희에 대한 얘기가 한 가득이다. 읽어 보니 아직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 같다. 지금 내 핸드폰엔 너희 번호가 여러 개 저장 되어있고, 토요일 알람시각은 센터에 가기 위해 항상 여덟시 반에 맞춰져 있다. 머리스타일을 바꿀지 말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하는 얘기 소재의 절반은 너희들과 있었던 일이다. 나는 너희들의 행복 도우미로서 너희를 만났다. 너희의 ‘행복을 도와주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와주러 간 건 난데,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고 왔다고. 나도 마찬가지다.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 나에겐 너희들이 바로 나의 행복 도우미이다. 마치 봄처럼 다가왔던 너희가 이젠 내 삶이 되었다.





서울 홍익대학교 법학과 2학년 조효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힘들다' 라는 편견을 깨고, 나는 당당히 월곡 초등학교 돌봄 교실 3반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신발을 벗고 교실에 입성한 순간, 아이들이 외쳤다.

“어?? 이 사람 누구예요? 정혜진 선생님! 이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당황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가 많냐, 키가 몇이냐, 이빨에 고춧가루가 켜다 등등... 짓궂은 질문과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기본교육 때 배웠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그리고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거울을 보니 내 이빨엔 확실히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던 것이다. 난 너희들에게 조금의 입 냄새도 풍기지 않기 위해 불과 10분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이빨을 뽁뽁 닦고 왔는데 말이다.

돌봄 교실 3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20여명이 속해 있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숙제를 하고, 소파에 앉아 독서도 했다. 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 이름도 물어보고 문제 풀 것을 채점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였다. 특히 여자애들은 내가 남자 선생님이라 그런지 채점해 주려고 하면, 문제집을 몸으로 가린 채 싫다고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봉사 첫 날, 나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수능을 볼 때 이후 처음으로, 나는 등 뒤에 식은땀 한 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다.

“너희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희들이 내 매력에 안 빠지고 배길 것 같아??”

나는 첫 날 알게 된 친구들의 이름을 핸드폰 메모장에 등록하고 수시로 외웠다. 우리 반엔 윤선이와 윤진이 두 쌍둥이도 있어서 얼굴과 매치 시키는 데 좀 애를 먹었지만, 나머지는 수월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오래도록 묵혀있던 겨울왕국 색칠공부 책도 가방에 챙겼다. 여자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나의 회심의 전략이었다. 색연필 세트도 넉넉히 챙겼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사실 우리 반은 노는 것 보다는 공

나는 지난 7월 말에 갓 제대를 하여 사회로 나오게 된 복학생이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다. 2년여의 군 생활 동안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동안 친구들과 술 마시기 바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제대 후엔 의미 있는 봉사활동과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이번 2학기에 같이 복학한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운명 같은 ‘동행’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저 없이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고3이었던 학생의 과외도 해본 적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선택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 손은 본능적으로 집과 가까운 거리의 월곡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순수해 지는 기분이 든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온 초등학생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면, 내가 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교육봉사에서, ‘남자 대

부를 열심히 하는 반이다. 왜냐면 ‘월곡초의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정혜진 선생님의 반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했던 건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반은 정말 공부만 한다. 정혜진 선생님이 교실 전체에 “조용히 해!”라고 호통을 한번 치시면, 우리 반은 그야말로 정적이 된다. 나는 숙제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정혜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장구수업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는데, 나는 그 때를 노렸다. 여자아이들에게는 엘사와 올라프(겨울왕국 캐릭터)를 예쁘게 색칠 할 수 있는 기회를, 남자아이들과는 신나는 레슬링 한판을 할 수 있는 좋은 놀이 시간이 되었다. 나도 같이 놀면서, 정혜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 다치실까봐 너무나 불안했다. 정말이지 옛날에 교복을 입었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나는 정혜진 선생님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다. 2시 30분. 나는 이 시간에 맞춰 볼 땀 미친 듯이 흘리고, 2시 30분 즈음엔 아이들을 자제 시키고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이들과 나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동행 봉사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너 계속 떠들면 정혜진 선생님한테 이른다!” , “야! 이제 정혜진 선생님 오신다! 조용!”

2달이 지난 지금 돌봄 교실 3반은 너무나 편안하고, 내게는 집과 같은 곳이 되었다. 내가 20명 중에 주로 숙제를 봐주는 채민이는 내가 봉사를 온 이후로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서, 수학시험에서 95점을 맞았다고 한다. 집중력이 유별나게 떨어지고 산만한 채민이를 끼고 앉아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고통이었다. 화를 잘 낼 줄 모르는 나를 유일하게 화나게 만든 것도 채민이다. 채민이가 2달 사이에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바뀐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혜진 선생님은 다 내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무나 뿌듯하고 내 아들 같이 느껴졌다.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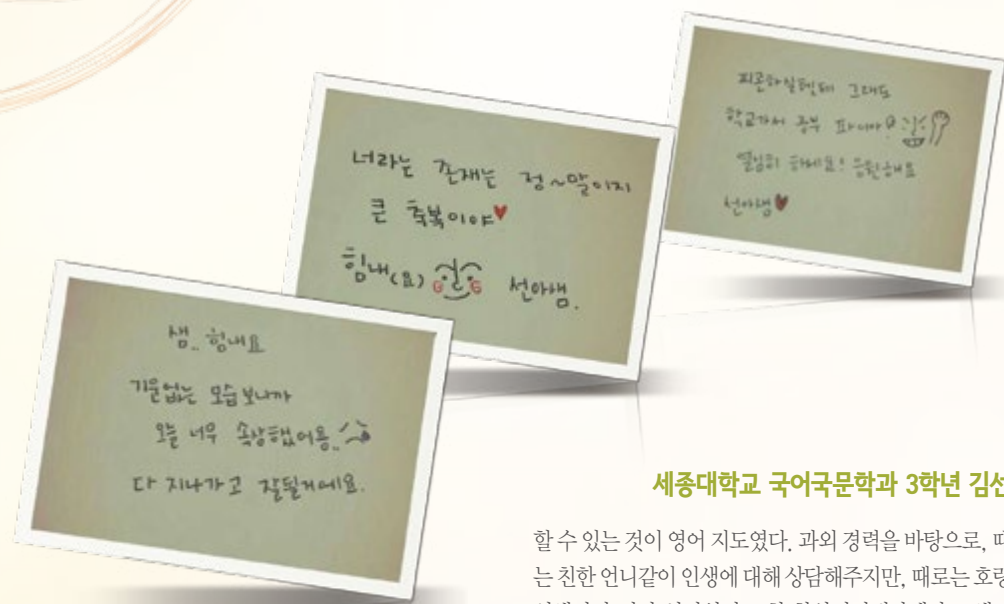
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이들은 나에게 표현도 많이 한다. 옆에 와서 동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3학년 다 큰 애가 자꾸 업어달라고도 한다. 한 번은 6명이 동시에 나에게 달려들어, 애들을 떼어내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집에 갈 때 항상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채워가는 기분이다. 처음에 낯을 가렸던 여자애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다면서 칭찬도 서슴지 않는다. 그동안 조금 자존감이 부족했던 나인데, 자꾸 잘생겼다 소리를 들으니 진짜 내가 잘생긴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괜히 어깨가 쭉쭉 펴지고, 얼굴에 웃음이 지어진다. 나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기를 기다린다. 요새는 아이들의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가 그렇게 좋다.

나는 졸업 할 때 까지 동행을 계속할 것 같다. 아니, 계속할 것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1시간 거리의 초등학교로 달려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글짐 위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제일 놀라고 말았다.

‘아니...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 보다, 컴퓨터 게임하는 것 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 이거 뭐지?’

돌봄 교실 3반에는 3학년 남자 아이 4명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돌봄3반 4총사라고 말한다. 이제 이들 4총사에게 나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봉사 시간이 다 끝나도 내가 집에 쉽게 갈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원하는 이들 4총사의 초롱초롱한 눈빛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없었던 왕눈이 게임, 상어 게임 등등 요상하지만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다. 내 나이가 25살, 어느덧 반오십이지만 이 때 만큼은 그저 똑같은 10살의 소년으로 돌아간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아이들을 집에 바래다주고, 나는 노을 빛 하늘을 보며 월곡초의 높은 언덕을 내려간다. 하늘이 정말 예쁘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늘을 보며 감상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하늘에 대고 크게 외친다. “애들아!! 나도 이제 돌봄3반 5총사로 끼워 줄 거지??”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김선아

“대학생이다.”

학교에 대학생만 방문하면 마치 연예인이 등장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다. 최대의 관심사가 입시인지라, 선생님들보다는 지금 막 대학생이 된 선배님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그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용기를 얻곤 했었다. 이렇듯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이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몸소 깨달은 적도 있고, 평소에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선배 언니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평범한 대학생인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재능기부’라는 단어가 나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무엇을 할 지 고를 때, 나보다는 수혜 학생을 먼저 생각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수혜 학생에게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하니, 그 당시 고등학생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던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지도였다. 과외 경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친한 언니같이 인생에 대해 상담해주지만, 때로는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 영어실력 또한 향상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여 사명감을 갖고 학교는 고등학교로, 프로그램은 교과목 학습지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첫 날, 마치 신입 사원이 된 듯한 기분으로 광양고등학교를 갔다. 오랜만에 밝은 고등학교 운동장과 나란히 서있는 직사각형 학교 건물 덕에 추억에 젖다보니 어느 새 교무실 앞이었다. 예전에는 매일 드나들던 교실과 교무실인데, 왜 이렇게 새롭고 설레는지 모든 것이 마냥 좋았다. 인상 좋으신 담당 선생님께서 내가 떨고 있는 것을 느끼셨는지 농담도 해가면서 친절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고, 수업할 교실로 안내해주셨다. 교실에는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하고 예쁘게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앉아있었다. 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쭙잖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우리에게 “너네는 화장 안 한 게 예뻐 나이야.” 라고 했는지 새삼 느꼈다. 화장기 없는 평범한 여고생인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이 학생과의 첫 만남부터 기분이 좋았다. 이 학생 또한 나의 학창 시절 때처럼 ‘대학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떠나 나 자체에도 관심이 많았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무섭다는 편견이 많은데 나를 보고 밝게 웃어주는 영하에게 정말 고맙다.



얼굴도 마음도 예쁜 영하와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 새 친분도 쌓이고 정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친해진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친분이 쌓이다보니 수업보다는 수업 내용 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시작 전에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을 정하고 이 부분만큼은 꼭 끝내자고 계획을 하고 시작했다. 영하도 공부에 욕심이 없는 학생은 아니라 가끔은 활동 시간이 끝난 지도 모르고 수업이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이 프로그램이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과 인생 등 학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수업 외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웬만하면 영하의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영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다. 영하는 학교 이야기, 친구 관계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평소 주변 사람들에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나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나를 믿고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영하에게 고맙고, 이러한 영하의 용기에 누가 되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줄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여 말해주었다. 나의 대답이 영하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하와 나는 답을 공유한다기보다는 마음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동행 특성상,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시간도 늦고, 학교 내부가 우리 교실 외엔 다 불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래서 겁이 많은 나와 겁도 없고 장난기도 많은 영하가 교실과 교무실의 불을 끄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영하는 내가 겁이 많다는 것을 알고 먼저 불을 꺼버린다거나, 혼자 빨리 걸으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가 화장실을 혼자 못갈 때도 같이 가주고, 집에 갈 때도 장난을 치다가도 바로 팔짱을 끼고 같이 가주며 누구보다 나를 챙겨주는 속 깊은 학생이었다. 가끔은 나보다도 언니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학교 공부, 알바, 취업 준비 등으로 항상 힘들어하던 나에게 영하는 가끔 응원의 카톡도 보내주고, 수업 중에도 힘이 되는 말이나 칭찬도 많이 해주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을 볼 때마다 ‘선생님 덕에 성적 올랐어요.’ 라고 말해주어 ‘보람’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다.

어쩌면 내가 영하한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은 이론적 앎이고 지혜는 실천적 앎이다.’ 라고 하였듯이, 내가 영하에게 단지 ‘지식’을 주었다면 영하는 나에게 그것보다 값진 ‘지혜’를 주었다. 나는 단지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었는데, 영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바꿔주는 순수한 기운을 많이 전달해주었다. 이렇게 나는 영하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느꼈는데, 고맙게도 영하 역시 나를 좋게 봐줘서 우리는 동행프로젝트의 종결을 아쉬워했고, 동행이 끝나고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 수업시간에는 할 수 없던 나름의 합법적인 수다 시간을 가졌다.

‘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이든 기본 좋은 일이다. 지금껏 봉사라고 하면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즉 영하와 보낸 시간들을 통해 봉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나만 준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많은 것들을 배워갔기 때문이다. 봉사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배워가는 쌍방향적인 도움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이 나처럼 수혜 학생과 서로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외나 학원알바가 아니면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예쁜 학생들을 학교라는 더 의미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동행 프로젝트에게 정말 감사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동행 프로젝트 고마워! 영하야 고마워!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최승희

서울시립대

의 학생인 나는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은 서울시의 수혜자였다. 나는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그 혜택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무게감은 내가 받은 혜택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당위적인 의무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지하철 안의 홍보물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동행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봉사활동으로 망설임 없이 동행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동행을 통해, 내가 받은 혜택을 서울시의 학생들에게 행복으로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봉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게 동행과 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내가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 중에서 한국우진학교를 택하게 된 것은, 나의 도움이 가장 크게 전달될 수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 학급에 배치가 되었다. 그곳에서의 나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급식 시간에 식사 보조를 해주는 것이었다. 선생님들께서는 특수 교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등장에 걱정이 섞인 놀라움을 내비치셨다. 그런 선생님들께 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씩씩함이 담긴 의지를 보여드렸다. 하지만 나의 처음의 의지와 기세는 머지않아 꺾이고 말았다.

그 때 당시 나는 우진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끝나자마자 촉박하게 수업을 들으러 대학교로 출발을 해야 했다. 이런 사정을 아신 선생님께서는 혹여나 나의 수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나를 일찍 보내주셨다. 그렇게 나는 급식 보조 활동 도중에 대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급식 보조 활동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수업시간에만 학생들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는 나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에 결국 나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중도 포기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진 학교에서의 활동은 첫 마음가짐과는 달리 참담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나에게는 죄책감이 마음 한 켠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이 되었다. 이번에는 학교 시간

표를 여유롭게 짜고, 다시 동행에서 우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이번학기의 실망스러웠던 나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중도 포기를 했던 그 곳으로 다시 향했다. 머뭇거리며 찾아간 우진 학교에 선생님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나를 맞이해주셨다. 특히나 저번에 중도 포기를 하고 편치 않은 마음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자 담당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기뻐하며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내 마음을 울리는 큰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계속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나는 우진 학교 유치부에 배정받아 학습 지도 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기 초인 봄에는 학교 밖에 산책을 나가서 봄에 핀 꽃들을 함께 보기도 하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옥상으로 올라가 비를 맞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들과 온 몸이 밀가루 범벅이 되도록 밀가루 놀이도 하고, 여름방학을 앞두고선 옥상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한, 한 학기는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꾸벅거리며 줄다가 부랴부랴 역에서 내리기도 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그 속에서 맺어진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나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동행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지만, 우진 학교를 향

하는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우진 학교가 여름방학을 할 때 까지 나의 발걸음은 계속 그 곳을 향했다. 마침내 나는 지난 학기의 중도 포기 자에서 이번 학기에는 그 누구보다 멀리 도달한 완주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2학기가 시작됐을 때, 나는 우진 학교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렇게 더욱 더 성장한 나를 향한 발걸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행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중도 포기자가 되어 저 멀까지 추락해보기도 하였고, 반대로 성실히 활동을 한 완주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도포기자가 되었을 때 느낀 것은, 봉사를 하겠다는 막연한 의지만으로 활동을 무턱대고 시작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지는 물론, 자신의 여건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충족되는지 숙고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봉사의 첫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동행은 부족한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동행 활동 속에서 나는 계속 배우고 느끼고, 성장해나가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기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계신 우진학교 선생님들과 동행 봉사자 분들,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나 역시 밝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는 동행 활동을 통해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혜택을 서울시의 학생들에게 행복으로 전하고 싶은 의도에서 시작한 동행이었지만, 나는 이 활동을 통해 글로는 이루 다 전하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우진학교는 단순히 봉사처가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나의 소속집단이 되었다. 이처럼 동행은 대학교 4년 동안의 활동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값진 경험이 되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동행 프로젝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동행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나처럼 중도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시고 신청하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중도 포기자분들에게도 중도 포기가 동행의 마침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나의 사례가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한국우진학교의 학생들에게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고, 부족한 나를 과분할 정도로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이승훈

군 복무

중인 2012년 6월 24일, 자대에서 밤새 상항 근무를 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누나의 전화였습니다. 곧장 청원휴가를 쓰고 군복을 입은 채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의 평화의 구심점이었던 어머니가 떠나시게 되니 많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휴가복귀 후 군 생활을 하면서 삶의 가치관에 대해 재고해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했지만 어머니와 사별한 이후에는 정신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장신분으로 학교에 복학했고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사람을 돕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방학에 말레이시아로 해외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필리핀 난민들이 모여 사는 '눔박'이라는 지역에 아이들이 공부할 '소망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2주간의 활동 중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상가옥인 집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친 나무판자가 지탱하고 있고 하수 시설은 아이들이 노는 물로 직행된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8-10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서울경운학교에서 공익요원인 친구를 통해 동행프로젝트를 접했습니다. 이후 교과목학습지도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동행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단단한 체구를 가진 저를 보시고는 가장 난폭하고 통제가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8명의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저를 보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담임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인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정신지체를 겪는 학생이 교실에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점프를 하였고 이를 강제로 말리려다가 하이킥으로

안면을 강타 당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하는 법을 조금씩 알려주었고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의 점심식사까지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육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보다 정신적 지체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체조로 수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나 요리 실습시간에서는 부침개, 팬케익 등을 주로 만들었는데 제게 인조차 잘 하지 않았던 학생이 수줍게 자신의 그릇에 있는 팬케익을 건네주었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활발했던 승환이는 항상 제가 집에 갈 때 정문까지 마중을 나와 배웅해주었습니다.

11월 말에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연간행사인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카드섹션을 준비했는데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학예회 당일,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고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제가 힘든 3명의 학생들 뒤에 선생님들과 함께 일일이 붙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근처 여자중학교에서 크레용팝의 뽀빠뽀를 공연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사이에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부모님께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심정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재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운학교에서 4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후 이어지는 다음 학기에는 은평대영학교에서 체험학습지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12시에 과체중인 학생들

과 함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운학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갔고 급세 친해졌습니다. 학생들과 실내운동장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야외로는 북한산을 함께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와서 마무리 인사를 할 때면 항상 '햄버거~' 하고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천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와 학생들과 만나 노는 활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낯설어하고 거리를 두었지만 이내 공놀이를 통해 친해져서 계속해서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학생들과 놀이를 한 후 씻는 것도 도와주고 생일 파티를 진행했는데 어느새 오래 본 사촌동생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영유아들을 돌보는 활동이었는데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제게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부모님의 위대함을 가장 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동행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고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현재 서울시의 공익인재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도 함께 나아간다는 동행 취지에 맞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 행복했습니다. 사회로, 직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해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동행은 내 삶의 가치관이 물질이 아닌 행복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참여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만남의 즐거움에 취하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기초학력향상지원)
- 어드벤처 스쿨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정종식

나는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오히려 귀찮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봉사활동에 빠지게 만든 일생일대의 일이 2013년에 일어났다. 때는 2013년 2월경,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통보를 받았다. 배치 받은 곳은 '경운학교'라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였다. 처음 아이들을 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멍한 표정으로 나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봉사활동 자체를 싫어했던 나에게 앞으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라 같았다. 그렇게 첫 한 달은 정말 지옥과 같았다. 학생들이 화장실 갈 때면 따라가 도와줘야 했고, 이런 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이 정말 싫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서 사회에선 보지 못한 순수한 모습들이 보였는지 점차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좋아져갔다. 결국 나는 그 아이들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되었다.

그렇게 8월 쯤 공익 6개월의 활동이 지나고 경운학교를 떠

나는 날이었다.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함께 한 아이들과 2학기도 함께 하고 싶었다. 결국 그 아쉬움을 동행 프로젝트에서 채우기 위해 2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나는 봉사활동에 빠져버렸고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에 중독이 되어갔다. 경운학교에서의 봉사활동, 혜화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거쳐 이번 학기에는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어드벤처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어드벤처 스쿨 프로그램 선생님을 만나 O.T를 받은 날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기 위해 이 봉사활동을 신청했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형이 되어 함께 뛰며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셨다. 사실 나는 고등학생 이후로 운동과는 연을 끊은지라 아이들과 뛰어 노는 활동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니 전혀 생각이 없었다. 혜화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도 활동적인 아이들과 뛰어 노느라 정작 오후에 있던 대학교 강의시간에는 졸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조금 정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날 만난 은섭이라는 귀여운 아이가 내가 지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은섭이는 포동포동하고 푹망하게 생긴 아이인데 난독증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쉽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도움이 필요했던 경운학교 학생들과는 다르지만, 밝고 건강한 친구들 사이에서 글자를 전혀 몰라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보이는 은섭이의 모습이 자꾸 마음이 쓰였다. 은섭이와의 더 많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었기에 어드벤처 스쿨을 그만두자는 생각을 포기했다.

어드벤처 스쿨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놀장이라고 불리는 동행 대학생과 3명 내외의 초등학생이 한 팀이 되어 팀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놀장은 자신의 팀 아이들과 일주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3개 정도의 놀이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은 매주 한 명씩 칭찬하고 싶은 학생을 뽑아 칭찬사워라는 이름으로 모두 함께 칭찬과 박수, 악수 등을 해준다. 놀장들은 어드벤처 스쿨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10분 동안 담당 선생님께 그날의 활동 안내를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놀장들은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놀이를 통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취지의 활동인 것 같다. 하나의 활동을 예로 든다면 그룹제글이다. 팀원들끼리 인형을 던지고 주고받는다.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는 주고받기 수월한 토끼 인형을 서로 던지며 주고받는다. 두 번째는 주고받기 어려운 고무로 된 긴 뱀 인형을 던지며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질문이지만 이러한 대답도 해볼 수 있다. 만약 토끼 인형이 내 입에서 나오는 친절한 말이고, 뱀 인형이 내가 꺼려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어떨까? 서로에게 친절 한 말을 해주는 것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우 애매모호하고 철학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놀이와 삶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놀장으로서 나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사실 어드벤처 스쿨의 활동도 생소했지만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학교 학생들이다. 은섭이도 나를 만날 때마다 더 편하게 느끼고 밝아지는 모습이 기분이 좋지만, 다른 두 학생도 정말 매력덩어리라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난다. 그 중 코리는 혼혈학생이고, 성준이는 까불이 4학년 학생인데, 은섭이와 코리, 성준이와 함께 놀장으로 내가 처음 만난 날에는 어드벤처 스쿨 첫 만남 활동으로 우리학교 소개하기 활동을 했다. 학교에서 자신의 추억의 장소,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가장 싫어하는 장소 등을 찾아가는 것이다. 역시 장난꾸러기 남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모두 놀이터를 제일 좋아했고, 신기하게도 모두 현재 자신의 교실을 추억의 장소로 떠올렸다. 아이들 덕에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라 함께 웃으며 보낸 첫 만남 이후로 아직 어리지만 나를 형! 형! 부르며 따르는 세 아이들과의 만남이 나는 정말 좋았다. 아직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어드벤처 스쿨 프로그램 봉사 기간이 남았지만, 매번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빨리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날 어떤 놀이를 할지도 궁금하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해소거리라고는 술과 게임 밖에 몰랐는데 어느새 봉사활동을 취미활동으로 생각하고 마치 전도사처럼 친구들에게 동행 봉사활동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때론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내가 봉사활동에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부정은 못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봉사활동처럼 새로운 느낌과 멋진 만남을 주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재미를 알게 된 것 같다. 아마 이번 학교에서의 봉사가 끝나면 또 아이들과 이별을 하는 아픔을 겪겠지만, 다시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미 그 만남에 중독이 된 것 같다.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만남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동행 프로젝트'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잘되길 바란다.



사진 속 연우가 준 마이썸과 들꽃, 정호가 준 블루베리 맛 마이썸, 정말 별거 아닌데 좋다. 혼자 사진 보면서 배시시 또 웃었다. 그냥 좋다.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벌써 보고 싶다! 나의 칙칙한 생활의 활력소 같은 요놈들이! 하지만 아침에 아주 잠깐 동안, 고해성사하자면 가정지원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 마음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부조리해. 완전 부조리해. 왜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학교 갈 때보다 더 빨리! 더 먼 곳을? '이런 부조리!' 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 어떻게 하겠나. 근데 자고 싶다. '이번 학기에 불금이 없더니... 하늘에 목 놓아 통곡 하리라...' '라고 하고 싶다가도 사실 불금에 별 거 없다. '알고 보면 다들 딱히' 라는 하상욱 시가 내 현실을 사정없이 후벼 판다. 눈물이 또르르...

아침도 거르고 버스도 타고, 장장 한 시간. 애들 얼굴 보자고 정말 한 주 한 주 참으면서 다닌다. 이제 진심 기다려진다. 봉사가 기다려진다. 내 무료한 일상 속에 탄산음료 같은 존 재랄까?

오늘도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찍고 있는데 요즘 들어 열심히 나오는 상원이가 왜 그 선생님은 안 오냐고 하면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물어보기에,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 이름은 "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이혜정

옥수수' 야."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물어봐서 계속 같은 대답을 해줬다. "웃지 말고 말해봐요~!" "진짜네?" ,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봐라 " 그렇게 돌아서면 잊을 먼지 같은 대화를 한다.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 준다고 약속했다. 손들고 발표도 하고 나가서 발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리고 텀으로 상원이 사진을 찍었다! 애들은 항상 이리저리 피하고 고개 돌리는 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오는 이유가 수업 사진 찍으러 오는 건데! 어쨌든 보기 힘든 상원이 사진은 건졌으니 만족.

연우. 우리 핑크 공주 연우. 오늘은 마스크까지 가지고 와서 사진 찍을 때 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 심지어 내가 사진 찍는 걸 피하려고 이리 저리 도망 다녔다. 그럴때마다 '연우야~ 우리 예쁜이! 카메라 셔터가 더 빠른 거 알고 있지? ' 혼자 입 꼬리를 올리며 연속촬영으로 연우를 찍었다. 그러다가 아주 책상 아래 숨더라. 너무 밀당하는 거 같아서 나도 좀 밀고 싶어서 말했다.

"선생님 5월 달에 안 올지도 몰라~"



"6월은요?"
"연우 하는 거 봐서~" 같이 밀당을 하다가 직구를 던질 타이밍이 와서
"선생님 얼마큼 좋아?" 하니까 맞춰 보란다. 어려운 여자.
"선생님 연우랑 이제 안 놀아야지~" 하면서 다른 조 애들 좀 봐주다가 다시 오니까 연우가 선물로 마이썸을 줬다. '역시 나의 인기란 후훗~' 거리면서 또 한 번 직구를 날렸다.
"선생님 좋아?" 이랬더니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는데 다른 봉사자가 "선생님은?" 하면서 물었다. 연우가 대답은 안하고 다음 주에 마이썸을 반반씩 주겠다고 했다. 갑자기 근자감이 생겨 "선생님은 혼자 좋아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연우 선생님 기 해~!" 이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놈의 인기. 선심 쓰는 듯이 수업 끝나고 선생님 손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강사 분들이 하는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이츠 마이 타임!" 아이들을 인솔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느새 연우가 와서 내 손을 꼭 잡는 것이다. 둘이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정호랑 재준이, 영주랑 소희까지 와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미안, 애들이 난 손이 두 개란다...' 나중에는 쟁탈전이 벌어졌다. 누구는 내 손을 잡고 누구는 왼쪽에 누구는 오른쪽에 팔짱도 끼고, 어기적어기적 걸어갔다. 누가 보면 범죄자 연행해 가는 줄 알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즐겁다. 오늘 배운 잠보송도 큰소리로 부르면서 내려갔다. "잠보! 잠보 부아나~ 하바리 가니 주리 사나~" 들을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노래 은근 중독성 있다.

절반 정도 왔을 때 우리 범생이 정호랑 재준이랑 연우가 남

았는데 재준이랑 정호가 또 내 손을 잡겠다고 티격태격 거리면서 나중에 세포 분열인지 뭔지 해서 뭐 내 팔을 하나 더 만들라면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다 귀엽다. 귀요미들. 계속 되는 '손' 쟁탈전을 진정 시키기 위해 "다음 주에는 돌아가면서 잡아줄게" 하면서 대 국민 선언을 꼬맹이들 앞에서 했다. 나중에는 서로 타협해서 등글게 손잡고 걸어갔다. 남이 보면 뭐하는 짓인지 하겠지만... 즐겁다.

내가 해준 건 애들 만날 때 마다 이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칭찬해주는 게 다인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미미한 존재였던 내 초등학교 시절, 2학년 때 내 그림을 칭찬해 주시던 선생님 덕분에 내 태도가 달라졌다. 참 작고 소소한 칭찬 하나였는데 그 뒤에 나는 봉사상, 모범상, 그림상까지 받는 나름 모범생이 되었다.

관심은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그 소소한 칭찬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들과 우주의 먼지 같은 대화와 소소한 칭찬, 다르게 말하면 '너에 대한 나의 관심' 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소소한 관심을 갖고 대할수록 수업도 뻘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느낀다. 그때 답임 선생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줄 순 없겠지만 하나의 작은 기폭제의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



사범대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
들에게 가장 기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 천혜주

되기도, 걱정되기도 한 과정은 무엇보다도 교육봉사 및 교육 실습이다. 늘 교육과 학생에 대해 배우는 단과대입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자격’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교직을 ‘성직(聖職)’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사범대 재학생들이기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다. 당시 2학년이었던 나도 그들 중 하나였고, 교육봉사에 대해 은근한 떨림을 지니고 있었다.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나는 학교에서 동행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독서지도 활동에 지원하였다. 이는 내가 이태원 초등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첫 번째 동행이었다.

이태원 초등학교는 녹사평 높은 곳에 터를 잡고 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 뼘 옆에는 고즈넉한 해방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10여년 만에 초등학교에 발을 디딘 동행 봉사 첫날의 내 마음은 설렘이 가득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두 우리를 ‘선생님’으로서 존중해주셨고, 이에 자연히 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매 주 도서관을 드나드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시던 보안관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까지 모두의 응원이 있었기에

나는 이태원 초등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나 또한 그분들의 학생으로서 돌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태원 초등학교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직은 서투른 선생님에게 답답할 법했을 텐데도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함께 책장을 넘기는 아이들과의 시간, 도서관은 따뜻한 햇살로 늘 넘쳐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언제든 놀러오라 하시던 돌봄 선생님이 생각나 처음으로 돌봄 교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1, 2학년 아이들로만 구성된 돌봄 교실은 학교보다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줬다. 다음에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나에게 아이들은 허물없이 마음을 열어줬고, 이에 감동한 나는 그 뒤로 독서지도 후 돌봄 교실에서도 손을 돕기로 했다. 선생님께선 내게 한 친구를 소개해 주셨다. 친구는 돌봄 교실 내에서도 손이 한 번 더 필요로 하는 아이였다. 이듬해 3학년이 되어 돌봄 교실을 떠나야 하는 친구이지만, 읽고 쓰는 것이 아직 더더 숙제도, 공부도 멀리하던 친구였다. 그러니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처음 친구를 만났을 땐, 나도 당황한 것이 사실이었다. 숙제 지도를 선생님께 부탁받았지만, 그 친구는 하려는 마음이 전

혀 없었기 때문이다. 돌봄 교실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자 지친 나는 숙제 이야기를 그만 두고 “그럼 우리 이제 뭐할까?”라고 물었고, 친구는 레고가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가져왔다. 그리고 스스로 푹푹푹 헬리콥터, 배를,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내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거예요!” 친구는 이처럼 상상력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던 아이였던 것이다. 비로소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아쉽게도 나의 1학기 봉사는 끝이 났고, 나는 아쉬움에 다시 한 번 2학기 동행 봉사를 이태원 초등학교에 지원하여 친구를 만났다. 돌봄 교실의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여름방학이 지나 새까맣게 타서 온 얼굴을 보니 친구도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온 듯 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연 우리는 돌봄 선생님의 권유로 받아쓰기 연습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고, 친구가 읽고 싶은 동화책으로 읽기 연습도 꾸준히 했다. 여름날 그림책으로 시작했던 읽기 연습이 가을 운동회가 열릴 때쯤엔 짧은 동화책으로 발전했고, 첫 눈이 내릴 때쯤 우리의 손에는 <책 먹는 여우>라는 긴 동화책이 들려있었다. 이 또한 친구가 정말 읽고 싶다고 한달음에 가져온 책이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글자로 된 모든 것들을 꺼려하던 친구는 이제 누구보다도 책 읽기를, 일기 쓰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된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돌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음악 수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선생님들께서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칭찬 한마디라도 건네실 때면 내 마음은 뿌듯함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내 마음이 그러니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친구는 이제 멋진 3학년 선배로서 도약할 준비를 끝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 동행 봉사 또한 끝이 날 순간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내게 고사리 손으로 접은 예쁜 하트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함께 병원 놀이를 자주 했던 친구들은 내

게 직접 ‘처방약’을 그려 주기도 했다. 모든 아이들과의 순간들은 이미 내 마음에 스며들어있었기 때문에 헤어짐은 정말 슬펐지만, 그보다도 그 친구와의 헤어짐은 유난히 힘들었다. 아이들과 한명씩 꼭 안으며 인사를 하고, 여자 아이들은 내게 뽀뽀를 해주며 인사를 했다. 친구의 차례가 되자, 옆에서 돌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선생님한테 큰절 한번 해야겠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친구는 말했다. “당연하죠!” 그러더니 내게 큰절을 한다. 이는 앞으로 교직을 꿈꾸는 내게 평생 동안 기억될 순간이었다. 친구의 마지막 ‘큰절’은 인사를 떠나 내게는 상징적인 ‘자격의 부여’로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동행 프로젝트를 통한 이태원 초등학교에서의 1년은 내가 사범대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직을 준비함에 있어 엄청난 자산으로 남았다. 강의실에서 매 순간을 교수님과 동기들과 무엇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토론하고, 그 방법을 배웠지만 이는 내게 명시적인 지식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작은 관심과 공감,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만으로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교는 똑같은 꽃들을 생산하는 화훼농장이 아니다. 각각 다른 색, 향기, 크기를 지닌 꽃들과 풀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담스럽고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지는 정원이다. 이태원 초등학교는 정말 꽃밭 같은 학교이다. 다양한 학생, 교사, 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공기가 늘 넘쳐난다. 그런 이태원 초등학교와 나의 인연을 맺어준 동행 프로젝트는 내 대학생활을 넘어 인생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경험으로 평생 함께할 것이다.



대학생 동아리 동행 봉사활동 수기



문이 열리자 추운 공기와 함께 낯익은 향기가 들어왔다. 카메라를 잡고 있던 눈도 콘터를 잡고 있던 손도 대본을 읽고 있던 입도 모두 출입문을 향했다. 아,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하는 기쁨. 자장면과 짬뽕, 군만두를 차리는 솜씨가 한두 번이 아닌 듯하다. 다들 능숙하게 랍을 벗기며 툇썩 주저앉아 후루룩 맛있게 먹는다. TV 예능에서나 보일법한 이 모습은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홍보 기획단의 매달 모습이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재를 빌리고 대본을 준비한다. 다른 팀은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팀은 완성된 기사에 레이아웃을 입히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어느새 동행 홍보 기획단을 시작한지도 1년 반이 가까워지는 요즘, 그동안 냈던 아이디어가 겹치지 않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우리는 유재석 같은 명품 MC도, 김태호 같은 유능한PD도 없다. 기획부터 섭외까지 모두 직접 발로 뛰어야 하지만 자장면 한 그릇에 다시 힘을 얻는다. 서울시동행프로젝트 안에 있는 동행의 그림자. 나는 홍보기획단의 6기 단장을 맡고 있다.

‘재능 나눔이 미래다.’ 한 기업의 광고로 유명해진 이 문구는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체력적으로 봉사를 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차여정

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중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는 대학생 교육봉사를 이끄는 가장 유명한 재능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와 동행의 첫 만남은 얼떨결에 이루어졌다. 국어국문이라는 전공과 교직이수를 위해 교육봉사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 먼저 동행을 시작한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내게 또 다른 재능을 나눌 기회가 다가왔다. 봉사시간 인증서를 뽑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어느 오후, 나는 ‘홍보기획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영상 • 디자인 • 소셜미디어 세 가지 분야로 동행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는 소개 글을 보며, 나는 이끌리듯 지원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방송에 투자한 나로서는 홍보기획단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나눔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아리라고 보기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전문적이라 보기에는 동아리 같은 홍보기획단을 하며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동행프로젝트와 교육봉사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체력적 부담이 덜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혹자는 ‘편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중도 포기 자나 불량 봉사자들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영상과 콘텐츠를 통해 만나본 동행 봉사자들은 동행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학생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갈지, 가르친다는 것이 단순한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봉사자들.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보고 그 해결방안이나 경험들을 영상에 담다보면 나는 지금 동행을 잘하고 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뜻밖의 경험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홍보기획단을 하며 빠질 수 없는 것은 여름 프로젝트. 여름방학기간 동안 단원 전체가 10분 이내의 영상을 대규모로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작년 여름의 촬영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때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하루,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찌는 듯 한 더위에 성균관대 언덕을 오르는 길조차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다. 그렇게 촬영을 겨우 시작했지만 햇빛이 강해 DSLR 카메라가 자꾸 꺼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우리는 너도나도 대본을 꺼내 카메라를 애지중지 가렸다. 컷 사인이 떨어지면 카메라를 들고 그들로 뛰어가면 그날은 다신 잊지 못할 것이다. 버스 정류장 신에서는 버스 뒷문으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좀더 쐬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맞댔다. 그렇게 힘든 촬영이 끝나고 나면 함께 먹는 치킨이나 빙수, 자장면이 꿀맛이었다. 촬영 전 미리 사냈던 얼음물에 얼음이 녹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살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에 감사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당시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짜증이 더 컸던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 동행 담당 선생님들, 홍보기획단 5기, 6기 친구들. 같은 동행 봉사자로서 기쁜 일, 슬픈 일을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다. 특히 이번 6기의 또래들과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며 걸어가는 친구를 얻은 느낌이다. 홍보기획단끼리 친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기회의, 팀 회의를 통해 없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좌충우돌 일을 하다보면 그냥 우정이 아닌, 색다른 우정이 생기게 된다. 메신저 방에 버블티 사진하나 가지고도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며 내가 동행을, 홍보기획단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스펙도 없고 정해진 꿈도 없는 20대를 살아가지만 누구나 가슴 한편에 남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내게는 동행과 홍보 기획단이 바로 그것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배워간다는 것. 쉽지만 어려운 일이다. 동행 홍보 기획단을 하면서 나는 이 쉽고도 어려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웃음을 배우고, 홍보기획단 단원들에게 실력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경험을 배운다.

자장면 한 그릇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자 접하기 쉬운 음식이다. 또 힘든 일을 하고난 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와 함께 먹는 음식이다. 나눔의 의미는 꼭 멀리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함께 빛내는 일이야말로 나눔의 온기처럼 따뜻한 것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동행은 ‘자장면처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이 담긴 한 그릇’이다.



고등학교 3학년

국민대학교 공법학전공 3학년 김지경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면서 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아야 하는 일들을 검색해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적은 리스트들을 읽어보던 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보람차고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서울이 목표였던 나는 서울에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다가 서울 동행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특권, 재능 나눔 교육봉사’라는 말에 끌려서 2012년도 대학교 새내기 생활과 함께 서울 동행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6학기동안 일반 봉사자, 대학별 대표단 그루터기, 기획봉사 기획자, 국민대학교 동행프로젝트 동아리 ‘KMUDOIT’ 대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약 400시간동안 동행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대학입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공부로 둘러싸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재밌는 체험을 함께 하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며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대학교 동행프로젝트 동아리

KMU DO IT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수혜 학생들이 함께한 ‘꿈을 찾아 떠나는 힐링캠프’라는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직접 프로그램 기획부터 봉사자, 수요처, 수혜 학생을 모집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봉사자, 수혜 학생들의 시간 조정문제, 세부 프로그램 아이디어 부족 등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기획회의와 동아리원들의 도움으로 기획봉사 프로그램은 갈수록 괜찮은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고 대망의 2014년도 8월, 많은 준비와 기대를 가지고 스피치 특강, 심리학 특강, 경복궁 밀리어네어, 물총 서바이벌, 캠닝맨(캠퍼스투어-런닝맨), 굿바이 멘토링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기획봉사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혜 학생과 대학생들 멘티-멘토로 짝지어서 서로간의 유대감 형성 및 수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생 봉사자와 1:1로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의 진로에 대한 조언 및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첫 날 스피치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과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

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며 나선 동아리 오빠의 “해보긴 해봤어?”라는 발언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둘째 날은 초빙해 온 심리학 강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격의 강점과 미덕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견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잡지를 통해 표현하는 자화상과 이를 연결시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셨다. 셋째 날엔 경복궁에 가서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정답을 맞힌 팀에게는 통인시장에서 도시락 반찬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엽전을 나눠주었다. 이때, 경쟁심에 불타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출제자에게 엽전을 달라고 평소엔 하지 않던 애교도 떨고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서 MVP가 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첫째 주 기획봉사가 끝나고 순식간에 둘째 주가 돌아왔고 이때는 서로 많이 친해진 멘티와 멘토들에게 더운 여름을 잊을 수 있도록 물총 서바이벌을 준비했다. 결국 뿔기로 뿔았던 물총들과 상관없이 페트병이나 양동이 같은 한 번에 물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준비 되어 있지도 않았던 물건들을 뽑은 학생들이 강자가 되었다. 마지막에는 처음 정해졌던 팀과 상관없이 물에 젖지 않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어 모두가 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고, 내가 학교 분수에 빠지는 것을 마무리로 놀이동산보다 즐거운 물총놀이가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아이들에게 학교 캠퍼스를 소개하고, 캠퍼스에 런닝맨처럼 미션을 숨겨놓고, 멘티-멘토가 함께 뛰어다니게 했는데 너무 덩다보니 미션출제자들이 에어권을 찾아 숨어서 아이들이 미션출제자를 찾는데 땀을 뻘

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획봉사의 끝이 찾아왔고, 아이들과 짧지만 재밌었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롤링페이퍼를 작성했다. 아이들은 2주간 정말 즐거웠고, 기획봉사가 끝나도 서로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며 본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술을 사달라는 부탁도 하고 헤어졌다.

짧다면 짧았지만,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길었던 기획봉사를 마치고 항상 모이던 교실의 불을 마지막으로 끄고 나올 때는 큰 일 없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봉사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이번 기획봉사만큼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기획봉사를 통해 다른 동생의 행복도우미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동행을 통해 뿌듯함과 다양한 경험을 얻어 결국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또 만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나는 2014년도 2학기 동행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고대부고로 신청했고, 같은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국어 교과목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기획봉사 할 때의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누나가 아닌 간간한 국어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의 눈부신 성적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일일장터 보조

2014년 11월 비로소 나는 색안경을 벗게 되었다.

나는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되어 지하철역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부러움이 섞인 질타와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고, 1년이 넘는 방황 중 나는 우연한 기회에 동행을 만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중 뇌성마비 장애인이 나에게 "죄..송..합니..다..화..장실..좀.."이라며 더듬더듬한 목소리로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자리를 피해버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시민의 도움을 받고 나오는 장애인의 모습이 보였다. 뒤로 따라 나오는 시민의 모습에는 바지와 옷에 잔뜩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2학년 홍형주

튀인 오줌자국과 잘 씻지 못해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시민의 모습에서는 찻잔한 모습이 아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조심히 가라는 말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렇게 장애인을 보내고 손을 씻는 시민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 찻잔하세요...? 엄청 힘드셨을 텐데.." 그러자 시민이 한 대답에 나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왜 찻잔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데요? 같은 사람인데?" 그 말을 남긴 채 시민은 자리를 떠나 버렸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동행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한국우진학교라는 곳을 보게 되었다. 중증 장애아동들이 일일

바자회를 하는데 일일보조 선생님이 되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뭐야~?' 하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얼마 전 장애인을 도망치듯이 피해버린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나는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했고 처음으로 우진학교에 가게 되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옆에서 안 잡아주면 잘 걷지 못하는 초등부 애기들부터 한시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고등학생까지, 그런 아이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걷고 있는 담당 선생님의 모습을 뒤로한 채 3-1반 교실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담당선생님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셨다. 우진학교에서는 장애가 2개 이상인 중증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휠체어를 다루는 방법과 아이들이 경련을 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간단한 응급조치 방법이었다. 설명이 끝난 후 나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고등부 남학생을 맡게 되었는데 얼마 전 내가 피해버린 장애인과 증상이 같은 아이였다. 아이는 무표정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일일장터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빵과 꼬치,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과 간단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바자회처럼 열리고 있었고, 우리는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 휠체어를 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쯤 내가 담당하게 된 아이가 갑자기 빵을 사러 가자고 했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 그곳으로 향했고 도착하자 아이는 더듬더듬한 목소리로 "빵..두..개..주..세요.."라며 주문을 했고 나는 속으로 '빵을 두 개나 사면 다 못 먹을 텐데...'라며 계산을 해주었다. 나는 "빵을 왜 두 개나 샀어? 하나만 사지~!"라며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하나..선생님 거.."라며 움직이기 힘든 손으로 빵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동안 내가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과 내가 피해버린 장애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왔던 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일일장터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급식실로 갔는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목에 호스를 꽂아 주사기로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부터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해 계속 움직이는 아이는 흘리는 게 거의 절반이었다. 한 사람당 3~4명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의 모습에는 힘든 표정 하나 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농담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와 다를 게 없었다.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다. 내가 가만히 서서 급식실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 담당선생님이 오시더니 "참 행복해 보이죠?"라며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아이들이 감정표현도 잘하고 생각보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저런 아이들도 자기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자기들만의 감정표현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손을 흔든다거나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게 되었다. 나를 보며 웃어주던 아이들, 내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들, 잘 가라며 나를 안아주던 아이들까지 '동행'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얼마 전 피해버린 장애인이 다시 찾아와 화장실이 급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나는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느꼈던 거부감 없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을 마친 장애인을 보내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나는 다시금 우진학교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014년 11월 '동행'을 통해 비로소 나는 색안경을 벗게 되었다.



제가 동행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의 장점을 살려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25살의 나이에 제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부족하다하면 부족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25년 동안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썼다면 미미한 시간이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느꼈고 평소 동생들과 놀아주기를 좋아하고, 낯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의 저와 ‘동생행복프로젝트’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14년 2학기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에 위치한 청덕초등학교에서 미술 돌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공이 경영학이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술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미술 관련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 미술 전시회나 미술 관련 서적(현대 미술사, 미학 관련 도서)을 꾸준히 접하면서 나름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 했던 중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과목 학습지도는 정적인 활동이었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 김기남

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리는 동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미술 돌봄 교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미술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뇌발달이나 창의성, 지각능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긴장도 되고, 초등학생을 대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잘해야겠다는 각오가 앞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오후 2시에 청덕초등학교 돌봄 교실 ‘아라반’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라반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굉장히 활기차고 장난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저 또한 평소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기에 스스럼없이 다가가고자 했지만, 아이들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아이들이 저보고 고릴라를 닮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릴라 흉내를 내었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서 그때부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청덕초등학교 아라반은 부모님이 사정상 못 돌봐주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후 늦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방과 후 수업을 받는 학생은 수업을 받고, 방과 후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은 미술 돌봄 교육을 받은 후 체육활동 및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 미술 돌봄 교육은 외부에서 선생님을 초빙해 매주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는 학습 목표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 후 직접 만들거나 그린 뒤에 한명씩 앞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미술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미술재료들을 아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돕거나,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따라가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날 주제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한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토의를 진행합니다. 한 시간에 걸친 미술 돌봄 교육이 모두 끝나면 간식을 먹은 뒤 보통 저는 남자 아이들과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가고, 여자 돌봄 선생님은 여자 아이들과 실뜨기나 철봉을 합니다.

미술 돌봄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어리광을 부리기 좋아하는 몇몇 아이가 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거나, 제 옷을 잡아당겨서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술프로그램이 재밌어 보여서 가끔은 참여하고 싶다는 충동도 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술 돌봄 선생님이 알아채시고 가끔 저에게도 미술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프로그램이 2인 1조로 감자전분가루에 물을 풀어서 액체처럼 만든 후에 검은색 마분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

데, 때마다 제가 코감기에 걸려서 감자전분가루 앞에서 재채기를 해버렸습니다. 감자전분가루가 옆에 있던 제 파트너 아이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웃음이 터진 아이들은 교실이 떠나가라 웃었고, 미술 선생님이 괜찮다고 진정시켜 주셨지만 굉장히 난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씻긴 후에 아이들과 더 친해졌고 이 계기로 미술 프로그램이 더 재밌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0주째 미술 돌봄 교사를 하면서 변화된 점은 우선,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저번 학기에 했던 교과목 학습지도 교사는 상대방이 중학생 3학년이었던 것은 하나, 중학생 정도 되면 어른스러운 면도 있어서 제가 눈높이를 의식적으로 맞춰야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제가 초등학생이 된 입장에서 들어주고 말해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들 착하고 좋은 것은 맞으나, 가끔 심한 장난을 치고, 놀아달라고 떼를 쓸 때 속으로 ‘나는 대학생이고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다. 선생님이 화를 내면 되겠는가? 참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이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정이 순해지고 밝아졌습니다. 이는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아이들은 표정이 험악하고 어두운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제 표정도 아이들처럼 순해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습을 바뀌게 해준 동행 꼬마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흑석동에서 열린 한마당 축제

중앙대학교 소모임 - 기획봉사프로그램



저는 2012년 2학기부터 동행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5학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2학기부터 시작한 중앙대학교 동행 소모임 1기로써 지금까지 3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행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싶어 중앙대 동행 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나를 아는 사람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봉사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과 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봉사를 하고 싶어 학교 소모임에서 하는 기획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모임 동아리 사람들끼리 수요처와 기획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회계까지 모두 세세하게 다 같이 공유하면서 기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장 가깝고 중앙대 학생 2명이 정기적으로 봉사를 가고 있는 흑석동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끼를 가진 아이들이라 놀라웠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으며, 연령대로 뭉치기보다는 다 같이 어울려 노는 분위기에 첫 방문은 매우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3학년 객재효

니다. 그리고 밴드부와 노래, 댄스, 합창을 비롯하여 어쿠스틱 기타, 하모니카,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끼를 계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여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센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위해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부초밥 및 카나페 만들기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에 쉬운 유부초밥은 어린이들과 카나페는 초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맡아 아이들과 즐겁게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고, 서로 요리자랑도 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준비한 리허설 무대를 보완해주고, 공연 당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와 호응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은 밴드부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에 바이올린, 댄스, 하모니카 까지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끼들을 공연을 통해 더

키워주는 생각과 동시에 아래층에 있는 어르신데이케어센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자는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점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 같이 먹을 유부초밥과 카나페를 요리했으며, 공연을 진행한 후 간식으로 다 같이 먹는 요리와 공연진행 2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아이들의 공연 리허설을 봐주고, 세심하게 조연을 해주며, 음악선정 및 순서배정 등 멘토 역할, 공연 당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재밌게 호응하는 등 성공적인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나성에 가면' 과 'doc와 춤을'이라는 곡으로 밴드음악과 합창을 했었는데, 할머니들께서 신이 나서서 일어나 재밌게 춤추시고, 아이들까지 함께 춤추는 훈훈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다 같이 유부초밥과 카나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늘 기획봉사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봉사자들과 더불어 앉아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여기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들 아이들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차나,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학생들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 10월 말에 있는 아이들의 공연도 다시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열심히 봉사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감대가 있는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는 것에 '봉사' 라는 것이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기뻐하셔서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1~2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획 봉사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을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여 이 추억이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동아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3개월 동안 동행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위해 수요처를 찾고 회의하고 기획한 동아리원 모두에게 고생 많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광운대학교

동행 소모임 두잇의
두 번째 기획봉사활동

동! 중학생 아이들의 적성, 진로 탐색과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한 일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기획 봉사는 초등학생 아이들과 2주에 걸쳐 다채로운 활동을 하는 일이었던 터라 몹시 흥미롭고 즐거웠다. 하지만 ‘중학생들의 적성, 진로 탐색과 학업향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하다니.. 나도 나의 진로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하..’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적성을 찾는다면 못 이룰 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보람찰 것 같다는 생각,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그 시절 꿈을 갖지 못해 방황하던 옛 생각,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길음중, 재현중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다.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3학년 진태화

그들을 만나는 순간! 중학교 졸업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우와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회상에 잠기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고 맑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나와 함께 멘토 멘티를 하게 된 지연이는 정말 때 묻지 않은 착한 아이처럼 보였다. 지연이와 처음으로 한 것은 적성검사였는데 지연이가 처음이라 옆에서 같이하자고 설득하기에 그 뒀에 넘어가 함께 적성검사를 받게 되었다. 적성검사 결과 뜨든 지연이는 간호사, 사회봉사자, 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등이 나왔고 나는 사업가, 대기업임원 등이 나왔다. 지연이는 활짝 웃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랑 똑같이 나와서 기쁘다고 하였다. 자신은 꼭 남을 도와주는 봉사 분야 혹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당찬 모습이 멋있게 보여 졌다.



그렇다면 나는 내 적성검사의 결과와 내 진로와 내 꿈이 일치하는가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남들 다 하니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대학 와서 똑같이 군대 가는 인생을 산거 같아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여태 이런 바보 같은 일상을 보냈는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사고했더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하물며 이런 깨달음을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중학생 어린 여자아이에게 받았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다. 이 날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다. 막연하게 남들 다가는 회사 취직해서 그럭저럭 먹고사는 직장인이 아니라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에 견줄 수 없을지언정 그 정

도로 크고 번듯한 회사의 CEO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한 내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다. 또한 봉사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힐링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힐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행복하다. 내게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준 지연이가 너무나 고맙고 너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듯 나도 무단히 노력해서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해볼게! 동행! 감사합니다!



동행 을 2년 가까이 해오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기획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기획봉사는 아이들이 궁을 견학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9월 27일 경복궁에 갔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견학 가는 것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고 떨렸다. 하지만 경복궁까지 이동하면서 아이들과 많이 친해져 재미있게 견학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1시간정도 걸었을 때 쯤, 지친 모습이 보이고 힘들어하여 휴식시간을 주었지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시 견학을 계속 진행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중요 궁궐이었고, 다른 궁들보다 커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오진명

이 많았다. 아쉽지만 경복궁에서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경회루만 갔다. 경복궁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을 메모장에 적으면서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특히 아이들은 경회루에서 “선생님 예뻐요” 라면서 사진 찍기를 먼저 요청했다. 경복궁은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가족단위, 관광객, 우리처럼 초등학교, 견학생 등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다른 곳에도 시선을 많이 줬다. 선생님 1명당 아이들 한명씩을 맡도록 해 안전하게 다녀왔다. 아이들에게 사 고없이 무사히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 25일에는 덕수궁에 갔다. 그 곳에서 왕궁수문장 교대

의식을 봤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수문군이 교대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행사는 지나가면서 자주 봤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교대의식은 화려하고 품위 있다는 느낌이었다. 덕수궁은 경복궁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의 건물 이어서 아이들이 저번 경복궁과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고종이 실제 차를 마신 정관헌은 ‘외교사신단 접대’ 리허설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못 들어갔지만 다른 날 다시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덕수궁은 가을에 가서 맑은 하늘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주변이 더 예쁘게 보였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소풍 나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보였다. 또, 아이들과 같이 런닝맨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직접 꾸미게 하고 런닝맨 게임을 같이 했다. 빠른 아이들은 엄청 빨라 힘든 모습을 보이기

도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얼굴에 미소가 남아있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남기려고 시작했지만 경복궁과 덕수궁을 견학하면서 나 자신도 이런 역사적 궁궐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가까이에 있어서 그냥 지나쳤던 궁궐들은 우리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건물들이었고 경복궁은 경복궁대로, 덕수궁은 덕수궁대로 그 궁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나에게도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과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획봉사의 이미지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돼서 경복궁, 덕수궁을 간다면 2014년 가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문화재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 아이들이 오래도록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커서 경복궁, 덕수궁을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이곳에 왔는데 참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4학년 신신혜

처음

홍보기획단에 지원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학기가 새로 시작되어 동행 봉사활동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홍보기획단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다. 홍보기획단의 활동이 흥미로워보였지만 동행은 한 학기밖에 경험이 없었고 특별한 재주도 없어서 지원을 망설였다. 원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더욱 고민했다. 하지만 동행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홍보기획단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행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생각에 용기내서 홍보기획단에 지원했고 지금은 홍보기획단 6기 소셜미디어팀으로 활동 중이다.

홍보기획단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이다. 홍보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다. 처음에 홍보기획단 6기들을 만났던 날, 너무도 어색하고 낯설어서 말도 거의 나누지 못했다. 1년 동안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홍기단과 친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다가가준 덕분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제는 회의나 취재를 다녀온 날에는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장난도 치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여름에는 다같이 1박 2일로 엠터를 다녀오기도 했다.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엠터 내내 정말 많이 웃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엠터를 다녀와서 며칠 동안 내내 엠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함께 여름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활동을 계획해서 동행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다들 힘들게 노력한 만큼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 도와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보람도 컸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홍보기획단의 또 다른 매력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며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홍보기획단 덕분에 할 수 있었다. 간담회나 나눔 특강 등의 동행 활동에 취재를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쓴다. 또한 나눔 특강 강사분이나 동행 봉사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뿌듯함도 크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생각을 듣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이다. 매번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홍보기획단을 하기 전에 비해 나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같이 있으면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봉사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봉사의 진정한 기쁨도 알게 되었다. 동행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4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교육봉사를 하고자 동행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봉사 활동을 해왔었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장애인아동복지센터 등에서의 경험 이 있었지만 화곡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는 기획 봉사가 무엇 인지 궁금했고 1박 2일 캠프라는 말에 솔깃한 저는 조금은 궁금한 마음과 잘할 수 있을까란 마음을 동시에 안고 봉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일이 되어 화곡동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만나 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었고 다들 바쁘신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내가 과연 1박 2일 동안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동행 봉사자분들은 야인시대 캠핑장에서 뒹굴고 저는 나머지 동행 봉사자 두 분과 함께 부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알게 된 사실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3학년 김수빈

이지만 같이 동행 활동을 하게 된 동행 봉사자 선생님 중 한분 이름이 저와 같은 김수빈 이라 한참을 서로 신기해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1박 2일의 봉사활동이 재밌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와는 다르게 야인시대 캠핑장은 매우 더웠습니다. 우리는 우선 텐트를 배정 받고 조금 있다 있을 바비큐 파티를 위해 식탁을 정리 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캠핑장에서의 야영은 처음이었기에 아이들보다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습니다. 야인시대 캠핑장은 해가 지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잔디밭은 억세지 않은 토끼풀로 가득 했으며, 캠핑장 안에서의 봉사자들은 피터팬, 웬디 등의 코스튬 분장을 하고 아이들과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재즈 음악이 들려오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바다 페인팅과 네일아트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봉사를 하러 간 마음이었지만, 아이들과 같이 노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정하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고기도 구워주시고 저희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맛있는 바비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어서 아이들과 동행 봉사자들이 진행하는 빙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물로 빙고 게임을 진행 하였는데 상상속의 동물도 된다는 우리들의 말에 제 23년 인생 중 처음 듣는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캠핑장 지리를 활용한 당력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무서운데도 무서운 티를 내지 않고 용감하게 동생들을 이끌던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듣지했거나 한 우리가 좀 더 무섭게 해야 했나 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지 새벽이 되도록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어린아이들의 체력은 끝이 없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육교육과인 저 자신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 보물찾기를 위해 아침 기상 때 일찍 일어나 아이들 몰래 보물을 숨기기로 한 우리들의 계획을 미리 눈치챈 것처럼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빙고 게임에서 일등과 이등을 한 아이들을 위해 힌트도 마련해 놨는데 그런 것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우리가 보물을 숨겨놓는 동안 열심히 쫓아 다니며 숨기는 족족 찾아내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런닝맨 게임을 통한 물총 싸움을 준비하고, 구경하면서 어린 시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각박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중 고등학생 때 그토록 좋아하고 즐겨했던 물총 싸움 생각을 한 번도 안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퇴장시간 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수고해주신 동행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라고 말해주시고 나서야 아, 하루가 이렇게 짧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획봉사를 통해서 다른 동행 봉사 선생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칙칙하고 너무나 바빴던 제 여름방학 중에서 가장 많이 웃고 평화로웠던 1박 2일이 된 것 같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과 동시에 제가 기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낀 알찬 시간 이였습니다. 잠시 머물고 가는 저희들을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고 존중으로 대해주시는 화곡지역아동센터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
다. 막연히 1학점을 얻기 위
해 들어온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운명적으로 5기
그루터기를 만났고 동행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선
생님이었던 저에게 동행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선
생님'이라는 단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슴 뛰게 하는 단
어입니다. 이왕 시작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에 동행 동아리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리 활동으로 우수 동아리원을 거쳐 올해에는 그루터기 6
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광운대학교는 현재(2014년 2
학기) 3기 동아리 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례
제목인 'DO-with'은 저희의 동아리명입니다. 함께 하자
는 동아리 명에 걸맞게 저희는 한 학기에 한번 봉사자간 친목
도모 활동과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에는 마니포와 기획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운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이경희

먼저, 마니포는 봉사자들의 친목도모와 사기 충전을 위해 준
비한 이벤트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학교 특성상 남자가 많다
보니 남-남 커플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지만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에 학교 오는 길이 설레었습니다.
저번 한 학기동안 중점적으로 준비한 활동은 기획봉사였습
니다. 이번 기획봉사는 그루터기로서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
고 활동 전반을 총괄하였기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지며 우리가 아이들을 위
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머
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
을 보며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한 수혜 학교
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홀
랜드'라는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홀랜드 적성검사'를 이미 받은 학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
다. 다음 기획봉사 때는 아이들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
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조금 쓸쓸했던 부분은 대학교 부속 중학교 같
은 경우에는 후원과 봉사자가 몰려서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이
이미 짜여 있는 반면 일반 중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
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동행 봉사자들이 다양한 학교
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였습니다. 동행 봉사
자들이 좀 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날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
니다. 1:1 멘토-멘티제를 시행하였는데 서로 멘티와 멘토를
찾아가는 그 수줍은 모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모든 기획봉
사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감사
하다며 연락하고 지내자고 먼저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모
습에 '역시 이런 보람이 계속 봉사를 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몇 명은 기획봉사가 끝나고도 계
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편
한 언니, 오빠로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
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동아리원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좋은 인연이 더 많이 생겼
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동행 참여 수기



농촌

봉사란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꼭 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다. 나는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재미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농촌 봉사를 가기 며칠 전부터 많은 기대가 되었다.

그런 마음가짐도 잠시, 봉사를 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송암리 솔바우 마을에 도착한 이후 마음가짐이 점점 바뀌었다. 우리는 3시간 이상의 대장정 끝에 우리의 목적지인 솔바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마을에 대한 첫 인상은 평범한 시골 어느 한 마을이었다.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도 몇 개 있었고,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 그리고 눈에 띄는 넓은 밭이 우리를 맞이했다. 마을에 도착한 이후 잠깐의 휴식 시간으로 족구를 하면서 평소엔 친하지 않던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바로 다음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시골 밥상을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맛있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맛이 없어 거의 모든 걸 남기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봉사를 한다는 점이었고, 우리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든든히 먹었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김수혁

배도 부르고 족구로 몸도 풀었겠다, 우리는 드디어 본격적인 농촌 봉사에 돌입했다. 우리의 첫 임무는 인삼 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이었다. 인삼은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는 이장님 말씀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잡초와 구분되게 뽑느라 모두가 고생했다. 인삼 밭에서의 첫 임무가 끝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대부분의 친구들은 마을 주변에 있는 잡초와 자갈들을 치우고, 옥수수 껍질을 베끼고, 들깨 밭에서 모종을 심고, 물 뿌리는 봉사를 하러 갔다.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은 이장님의 부름을 받아 비료 옮기는 일을 맡아 했다. 비료 포대는 하나당 20kg으로 우리 앞에 수십 개, 심지어 백 개도 넘어 보이는 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은 많이 힘들었다. 냄새가 이상한 비료 냄새를 계속 맡아야 했고,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상태였다. 그렇게 처음 하는 농촌 봉사가 쉽게 다가오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주시고, 시원한 수박으로 갈증도 해결해주셔서 그나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동안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도 재미있게 대화하고, 다 같이 일을 하니 금방 끝낼 수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을 할아버지와 이장님은 시골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농사를 할 때에 요령과 비법 등을

알려주셨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나는 그 얘기들을 듣고 농사일의 중요성과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것에만 기대가 컸던 마음가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단 2일 동안만 농촌에서 일을 돕지만, 거기 계신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아무 불평 없이 한다는 걸 직접 보고,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다 마음가짐을 바꾸어 친구들과 더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다짐해서 그런지 일을 하는 내내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온 몸은 땀범벅이었고, 손은 비료 냄새로 뒤덮여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이것이 봉사의 묘미인 것 같다. 봉사를 마친 우리가 봉사활동 다음으로 기다렸던 것은 선생님이 사 오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과 저녁이었다.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봉사로 더러워진 몸을 씻고 먹는 저녁은 정말 모두에게 꿀 같은 저녁이었을 것이다. 다들 배가 고팠는지 며칠 굶었던 사람처럼 점심에 먹은 양의 족히 2배가 넘는 양을 먹은 것 같다. 그 뒤, 우리가 다 먹고 잠시 쉬고 있을 동안 이장님이 오셔서 마을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출발 전부터 선생님께서 우리학교와 솔바우 마을이 자매결연 하였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장님의 마을 설명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마을 설명은 마을에 대한 정보와 앞으로 마을의 계획까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듯이 매우 계획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회 또한 봉사활동을 할 때 마을을 움직이는 이장님의 방식처럼 계획성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생회 임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다. 마을 설명을 마치고, 우리는 모여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학생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이 학생회 전체가 모이는 첫 시간이었지만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것을 얻어가는 첫 모임이었다. 어느덧 이러한 활동들이 지나고 저녁 먹은 것도 소화될 쯤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야식으로 주셨다. 다들 무서운 속도로 먹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치킨도 먹었겠다, 다음은 '자유 시간' 이었다. 모두가 모여서 마피아, 딸기 게임, 야·너·인마 게임, 랜덤 게임 등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도 즐겁게 놀다보니 새벽 3시도 넘는 시간이었다.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 날에 해야 될 봉사를 걱정하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에는 첫날에 했던 봉사와 늦게 잔 후유증 때문인지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지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첫 행선지는 옥수수 밭이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탄 옥수수를 집에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최고의 옥수수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하게 되었다. 나도 최고의 옥수수를 차지하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다녔다.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 주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야 하는지, 무엇이 맛있는 지까지 설명해주셨다. 이후로 우리는 감자밭으로 향해 그곳에 있는 자갈과 돌을 모두 주웠다. 태양빛이 정말 강했던 터라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발할 때 나눠주신 쿨토시와 쿨타월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가장 힘든 마지막 봉사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돌아와 밥을 먹은 뒤 씻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이번 봉사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다.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한명의 열 걸음보다 열 명의 한 걸음이 더 큰 위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함께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헤쳐 나가는 것에 더 큰 힘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농촌 봉사에서는 '함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농촌까지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제 대학교에 가서 농촌 봉사를 갈지, 언제 또 농촌 봉사를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농촌 봉사 캠프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중한 추억과 유익한 시간을 기획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에 입학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 본 적도 없었고, 위에 형제가 없었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야간 자율 학습도 매일 했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중요한 과목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학은 정말로 형편 없는 점수였기 때문에 흥미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이과에 진학한 이상 수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에 수학 학원이나 과외를 다녀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었던 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동행’에 대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신청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각 반에서 한명씩 뽑는

신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배운진

거라서 경쟁률도 치열했지만 다행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광지에 선생님과 교재도 같이 정하고 수업 계획을 짜면서 미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성적을 꼭 올려보아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수업 첫 날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친한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게 되어 안심도 되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아 광지에 선생님과 같이 한 수업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대학생 언니에게 처음 수업을 받아봐서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수학에 흥미도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기본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설명해주시면 우리가 응용문제를 풀고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의 수업이라서 학교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과외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심화문제가 나올 때면 친구는 술술 잘 풀어 가는데 전 이 문제를 어

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도 찾지 못했고,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문제를 풀어 봐도 제대로 풀지 못해 자신감이 점점 떨어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종종 즐기기도 했습니다. 의욕이 떨어진 제 모습을 보신 선생님은 기본이 부족해서 그러니 고1 과정을 풀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따로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을 질문하면 제 수준에 맞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계산에 약해서 계산 실수가 잦았는데 선생님께서 연습장에 풀이과정을 깔끔하게 적는 법을 알려주신 덕분에 실수를 했을 때 더 빨리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 실수는 조금씩 줄었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광지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집중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때 선생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문제집 한 권도 채 못 끝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공부했던 문제집을 보면 그 때 노력했던 것이 생각나서 뿌듯합니다. 선생님의 조언은 포기가 빨랐던 저의 태도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도 더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마치고 광지에 선생님, 친구와 다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정해진 수업시간이 끝났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동행 담당이신 김지민 선생님께서 광지에 선생님과 더 수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함께 광지에 선생님을 설득해 한 학기만 더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행 담당 선생님이신 김지민 선생님과 같이 광지에 선생님께 한 학기 더 수업해달라고 부탁드리게 되었고, 다행히도 광지에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신 덕분에 다시 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더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무척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학교 행사로 수업이 빠지게 되었을 때는 시험대비로 보충도 해주시고, 메신저로 질문했을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희를 가르쳐 주셨기에 저희도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과를 선택하고 나서 처음에는 왜 이과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에서 배워야 하는 범위도 문과생보다 두 배정도 많았고, 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에 흥미가 없고 잘 하지도 못했던 저에게는 특히 큰 벽 같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동행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점점 더 흥미를 잃고 자신감도 잃어버려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지에 선생님은 저에게 좋은 수학선생님 이시면서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촌 언니 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끝까지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멋진 대학생 언니를 만났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고 더 수업하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이던 어떤 일을 하던지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지에 선생님! 저희를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한 학기 더 수업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동행 담당 김지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기에 저는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면 수능을 위해 더 노력해야하고 더 공부하기 힘들어질 것이지만, 동행을 통해 배운 것이 큰 밑거름이 되어 남은 1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동행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학생이 되면 저와 같이 공부에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동행 교사가 되어 봉사하고 싶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
(기획봉사)



작년

에 이어 참여하게 된 장수사진 봉사활동은 전 학년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작년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 봉사자가 적었고 활동 가능한 영역들이 한정적이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은 다양한 활동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년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내에서 배울 수 없었던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 이번 '2014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장수사진 만들어드리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해킹보안과 2학년 김형욱

작년에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장수사진 만들어드리기'라는 동행기획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네에서 자주 뵈거나 처음 뵈는 분들에게 장수사진도 찍어드리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조언을 얻었던 경험이 감명 깊어 이번 년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당일엔 진행되는 장수 사진 촬영 행사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작업들은 몇 주의 시간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끝맛 같은 주말 시간, 방학 시간까지 투자하며 활동한 봉사활동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느끼는 감정과 배움이 너무도 좋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봉사활동모임은 사전에 몇 주 전부터 모여 봉사활동을 기획하였고 사진 찍기, 사진 보정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실 수 있도록 다과를 구입하고, 선물을 구입하고 포장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봉사활동 때 학교 동아리에서 공연을 준비해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년도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 장수 사진 찍기 행사를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봉사 활동은 촬영 인원이 너무 많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사진 보조 역할을 하며 100여 분의 사진 촬영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촬영해 드리는 인원수가 줄어든 대신 여러 단체에서 60여 명의 어르신 분들이 오시게 돼서 복잡하긴 했으나 북적거리지 않아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 사진은 아무나 찍어드리는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 중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이라 행동과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만 했고, 사전에 행동이나 말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표정이 많이 굳어있으시고, 말도 잘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에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 분들께 어떤 인사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하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과 활동 내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더불어 사탕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며 봉사를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사 스케줄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어르신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얼굴 마주 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수사진 봉사활동은 여유롭고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할 때마다 배우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사진 봉사활동에서 배운 깨달음은 겉으로 보이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됬됨이 또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에 참여한 문하람입니다. 제가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꿈을 위해 신청하였고, 두 번째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었습니다. 제가 직접 천연 비누, 방충제, 버물리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서 좋았습니다. 손쉽게 사는 물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것들을 선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연희중학교 1학년 문하람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할머니를 보면서 웃는 것 밖에 없으니 예쁜 미소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이 가져간 선물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어른들께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더 행복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늦잠을 자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를 뵙는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쉬워 다음에 또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따로 할머니를 뵈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선배님들께 장수사진 촬영에 대해 교육을 받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로 기획봉사를 한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3이지만 봉사활동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험을 발휘해 후배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학창시절 마지막이 될 동행기획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해킹보안과 3학년 박영민

행사를 시작하는 전날까지 후배들에게 포토샵 교육과 함께 행사에 쓰일 소품들을 준비하였고, 대학생봉사자 형, 누나,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다과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 조사하기, 한복 대여하기, 준비물 운반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위해 아현시장 골목을 누볐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행사 당일, 미리 준비해 놓은 소품들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촬영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부지런하셔서 제때 시간을 맞춰 오셨고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한복을 곁에 입고 일찍 오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어르신들의 촬영 순서와 진행을 도와 주셔서 학생들이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바쁜 봉사활동이 끝나고 귀가할 때 선생님께서 미리 나누어 주신 '포토샵 인물보정' 프린트물을 보고 집에서 열심히 포토샵 인물보정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얼굴에 퍼져있는 검버섯을 보정 작업을 통해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게 작업해야 하는데 사진보정작업은 촬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 장을 보정하기 위해 20~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보정을 위해 사비로 새로 구입한 인물보정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했는데 선생님의 열정과 봉사하는 마음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수사진 촬영 전에 어르신들의 흥을 북돋아 주던 위문 공연 팀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그동안 선생님과 대학생 봉사자,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마포복지관 김원이 사회복지사님,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최은영 복지사님,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카프카스튜디오 이성택 대표님 등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봉사자 박영민'을 기억해주셨고 취업과 졸업을 앞두고 '축하' 보다는 먼저 아쉬워하는 모습에 사회인이 된 후에도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배워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쓴 부채 만들고, 빵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했고, 천연 비누와 벌레 퇴치제, 버물리를 만들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생활용품들 독거어르신께서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해킹보안과 3학년 박영민

처음 독거어르신 댁에 가서 뵈었을 때는 많이 어색하긴 했지만 최대한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8월 8일 '하(夏)하(夏) 행복산타 출동!' 마지막 날 출정식을 하고, 행복산타가 되어 방문했을 때 독거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다음에도 또 찾아뵙고 싶었고,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6일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고 정말 재미있게 활동을 하여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독거어르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대인관계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가 되어주신 배현정, 배운정 선생님 덕분에 더 알찬 봉사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교사 동행봉사활동 운영 수기



신당초등학교 교사 이정숙

우리

반에 송이(가명)라는 예쁜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저는 “송이야, 예쁜 송이야” 하면서 송이를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3월초 바쁜 기간이 지나고 반에 집중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수업을 하면서 저는 송이의 심각한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 시간만 되면 송이의 그 밝던 표정은 어디로 가고 자신감이 쏙 들어가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왜인가 살펴 보았더니 3학년인데도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한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학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되지 않으니 곱셈과 나눗셈은 물론 다른 분야의 3학년 학습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진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따로 남겨서 아이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에는 송이 외에도 3학년 단계에 해당되는 수업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송이를 지도하자니 수업내용이 다르고 송이도 부끄러워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3학년에게 1학년 과정을 가르치자니 수업시간에는 3학년 과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아이가 멍하니 앉아있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달이 지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동행선생님들의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저희 학교의 동행관리 교사였던지라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년 선생님과 의논하여 송이에게는 1명의 봉사선생님을 따로 배치하고 조금 실력이 나은 어린이들은 3~4명씩 그룹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행 수업이 시작되기 전, 봉사선생님에게 송이의 학습정도를 설명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잘 지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솔직히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송이는 앞으로 많은 수학시간에 그냥 앉아있지만 한 존재가 될 것이 분명했고, 그런 송이에게 동행 수업은 절박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날, 우리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손은 학교업무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귀는 계속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송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한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외 다른 연산은 전혀 되지 않았고 구구단도 쉬운 단계만 처음부터 외워질 뿐이었습니다. 저 상태로 2학년을 보

냈으니 본인은 얼마나 수학시간이 답답하고 불안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날부터 봉사선생님의 끈질긴 인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배운 것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절반은 잊어버리고 오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선생님의 목소리 높이고 미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이는 편안하게 계속 수업에 참가했고 “못하겠어요!, 그만 돌려요!”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오히려 옆에서 듣는 제가 더 조바심이 나고 인내심의 바닥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소질이 다른데 저 아이인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닐까? 봉사선생님을 오히려 다른 친구에게 배치하고 송이는 수학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주 한 주가 흐를수록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6월 달이 되자 “그래! 송이야, 정말 잘했어!”라는 봉사선생님의 외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송이가 올림과 내림을 서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옆에서 “우와! 우리 송이 드디어 수학박사가 되려나 보네!”하고 함께 격려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행예산으로 구입한 과자나 날씨가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주면서 충분히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1학기 봉사가 끝날 때쯤 송이는 드디어 모든 형식의 덧셈과 뺄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저도 송이에게 3학년 과정을 보충 지도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요즘 송이는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본 단원점점 쪽지시험에서는 1개만 틀리고 모두 맞아서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학년 기초과정부터 시작하여 3학년 과정까지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했던 일을 동행 봉사선생님들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옆에서 부지런히 기초를 다시 복돋워 주고 저는 그와 더불어서 함께 올해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많은 초등학교에는 수많은 학습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고학년이 될수록 이 친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은 담임업무와 학교업무로 바쁘고 해당 학년의 보충수업은 진행할 수 있지만 누적된 기초까지 지도하다 보면 해당 학년의 학습은 전혀 보충학습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동행 봉사선생이 내밀어 준 손은 참으로 든든한 지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혼자 있던 친구들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친구들과로부터도 혼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는 한 명이라도 든든한 지원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동행 봉사선생님이 우리 송이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진과목의 구제뿐만 아니라, 자신감,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동행!

작은 움직임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민 그 소중하고 따뜻한 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직생활

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
현실은 늘 똑같고 몸도 마음
도 타성에 젖어 있을 무렵, 남편의 해외 근무로 나는 아주 낯
선 땅 베이징에서 살게 되었다.

2005년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회색빛 하늘과 무채색 옷
을 입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앞날
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였다. 낯선 언어들 사이에서 혼자
가 된 외로움과 함께 아이들을 이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까지 겹쳐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힘들게 살았다. 그해 9
월 북경한국국제학교에서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특수학급을 찾았다. 낙후된 시설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그곳에
서 다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장애 정도가 다른 장애학생
이 7~8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특수교사 혼자인 나는 자원봉
사 없이는 학생들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
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변의 재주 많은 한국 사람들
의 재능들을 기부 받고 일반학급의 학생들과 ‘우리 같이 놀
자’ 라는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학생에게는 봉사하
는 기쁨을 장애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
었다. 해가 바뀌면서 나의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즐겁
고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 현지교민들과 함께 하
다 2011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다.

복직 후 북경에서의 6년 세월은 많은 것이 바뀐 현실을 마주
보게 하였고 그 현실은 가혹했다. 나이스라는 업무 시스템은
컴맹인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공백기의 세월만큼 학교 선생
님들과도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다. 이런 현실이 또 두렵고 회
피하고 싶었다.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중국에 계
신 지인들과의 그리움을 추억삼아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

던 차에 2014년 나에게 자원봉사 업무가 맡겨졌다. 업무에
경증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육경력이 한참인 내가 나
이 어린 봉사자들을 교육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금
싫었다. 다리도 조금 불편한데 자원봉사학생들을 배치하러
이 교실 저 교실을 다니는 것도 귀찮고, 늘 친절하게 웃으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는 반복된 일들도 싫었
다. 속된 말로 ‘내 군번에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물론 자원봉사 일이 본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매우 중
요한 일인 것도 알고, 봉사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미 북경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봉사의 보람
을 함께 맛보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친 나에게 자원봉사 업무
는 큰 짐 덩어리였다.

동행이라는 자원봉사 센터가 생긴 줄도 업무를 맡고 처음 알
았다.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구시대 의 나에
게 ‘동생 행복도우미’ 라는 동행자원봉사센터의 의미도 꽤
낯설었다.

관리자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컴퓨터 세상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남의 프로필을 훑어보는 것 같이 내 관리학생들을 쳐
다보는 것도 편하진 않았다. 인터넷으로 봉사등록하고 관리
교사가 일감을 구하는 일도 인력 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컴
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그 공간 또한 꽤 낯선 곳이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왔다. ‘저 동행에
서 왔어요’ 학생들 또한 기본교육을 받았겠지만 새로운 우
진 학교라는 곳이 꽤 낯선지 수줍은 듯 겁먹은 듯 학생들도 나

한국우진중학교 교사 박은주

와 같은 심정으로 학교를 찾았다. 학교에서의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기본교육을 하고 학급 배치를 하고 한 달이 지나
갔다. 대학생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대학생들과 교사들
이 신청한 교재도 사주고, 컴퓨터에 들어가 학생들 봉사시간
을 등록해주고 정신없이 또 한 달이 지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함께 컵
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를 엄
마라고 불러 주는 녀석도 생기고 내 큰딸과 비슷한 연령의 학
생들이 딸처럼 아들처럼 다가왔다. 우리 같이 낯설음을 극복
해요 하듯이 서로 수줍게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진 학
교 아이들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자기들의 남자 친구이야기,
가족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대학생들
이 봉사를 오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두드렸고 대학생들도 나
를 보면 손을 내밀고 포옹을 하며 반가워했다. ‘김밥 지겨워
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며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어느새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방학이 시작
되고 학생들과 헤어지며 학생들의 취업을 걱정하고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다음에 또 만
나자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2학기가 시작되고 1학기에 봉사를 왔던 반가운 얼굴들도 우
진 학교를 다시 찾아와 주었고 또 다른 낯선 대학생 친구들이
찾아왔다. 3월에 느꼈던 그 낯설음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낯
설음이라고 할까? 나도 여유가 생겨 처음 봉사 온 학생들과
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겁 없이 도전한 동행 기획봉
사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탐험-대중교통이용하
기 프로젝트 기획봉사는 동행 자원봉사 학생들 없이는 활동
할 수 없는 기획이었다. 기획 봉사가 매우 멋지다고 공정에너
지를 보내주었던 기획봉사 여학생들이 본교 기획 봉사 실무
팀 선생님을 보다 더 큰 의지가 되었다. 우진 학교 학생들의
휠체어를 끌고 지하철, 버스 등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던 봉
사학생들 덕분에 기획봉사가 잘 마무리 되면서 나는 ‘해냈
다’ 라는 자신감과 함께 외국생활의 긴 공백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우진 학교 학생들, 동행 대학
생, 본교 교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대가 없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다. 이 봉사의 의미가 스펙이라는 것의 하나로 그리
고 학점의 하나로 전락하여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지만 그래
도 그 와중에 동행 자원 봉사 센터 같은 단체가 중심을 잡고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에는 스펙 때문에 학점 때문에 봉사를 했던 학생들도 봉사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늘 밝은 모습으로 준비된 동행 자원봉사 학생들이 우진 학교
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억지로 하는 친구
들도 있고 시간에 쫓겨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봉사시
간에 연연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 학생들도 시간이 지
나면서 봉사의 파스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 낯설고
두려운 봉사라는 세상에서 파스함을 느끼고 서로를 늘 그리
워하길 바란다.

북경에 있을 때 늘 우울한 얼굴로 자원 봉사를 오는 학생이 있
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청소를 하던 학생이었다. 봉사를
평계로 만나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
다. 살고 싶지 않았던 녀석에게 그 봉사는 유일한 희망의 끈
이었다. 지금은 멋진 대학생이 되어 엄마라고 부르며 가끔 전
화 안부를 묻고 스승의 날이면 찾아오는 녀석을 보면서 봉사
의 낯선 시작이 파스함을 넘어 그리움이 됨을 실감한다.

북경에서 만났던 그 친구처럼 세상의 낯설음에 발을 내딛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낯설음을 넘어 파스함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대학생들이 동행의
마법에 빠져 들길 바란다.



동행으로 맺어진 가족들!! (1)

5년 전

경동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본교가 서울시 학업 성취 미달교라는 오명이라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2학년 담임이었는데 과연 70년 전통의 명문교에 난데없는 학업 성취 미달교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이 30여명의 학생들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고심한 끝에 ‘이 대상 학생들을 데리고’ 기초 학력을 연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라는 방안을 모색하여 얻은 결론은 이들을 가정의 어머니처럼 방과 후인 16시부터 이 학생들에게 먹이고, 재우고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숙제라든지 부족한 학습 지도라든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을 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저희 집이 멀어요, 아직 애들이 어려요, 늙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등등의 이유로 모두들 기피하였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지만, 정작 방울을 달 존재’ 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힘든 일을 맡지 않겠다며 서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과 함께,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볼 수없는 급한 성격 문에 자원해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가 되면 학생들과 함께 학습실로 와서 스스로 숙제와 공부를 하였고 17시 30분에 학교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밥을 먹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밤 10시까지 학습 지도를 하는 소위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모두 외국에 있었고, 집에는 노환이신 고령의 어머님만 계셨기 때문에 미처 저의 집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라는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연유로 그 다음해 성취도 평가에서 무난히 합격을 하여 학업 성취 미달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 자연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교 1등인 학생(현 순천향 의대 1년생)을 비롯하여 함께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동고등학교 교사 고종애

예전의 다소 소란스러운 자습실의 분위기는 없어지고 우등생이 기초학력 향상반이 일원이 되어 제 관리 하에서 공부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후 저 자신도 학생 지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성북구청에서 본교와 학습 멘토링 사업을 벌이게 되어 동료 교사들 역시 기피하는 업무라 자원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여 5년째인 오늘도 매일같이 10시 이전에 퇴근을 해 본 적이 없어 경동고 학생들 사이에는 ‘야간 교장선생님’ 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을 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매우 기분 나빠하실 별명이었겠지요.

저는 봉사자나 수혜 학생에게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를 믿고 시간과 같은 약속을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어머니들보다도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그들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옆에 있겠다라고.... 그래서인지 멘토링 활동이 끝날 때에는 몇몇 봉사자들이 마음의 선물이라며 조그만 선물까지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 보니 자연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활동에도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짙은 화장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속이 다 비치는 시스루의 블라우스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자주 복도, 운동장, 화장실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그들은 바로 대학생으로서 ‘동행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다소 복장이 도를 넘는 것 같아 관리교사를 찾았으나 이미 퇴근을 한 상태라 다음날 지도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이 멀다며 일찍 퇴근하는 교사를 보며, 더구나 담당교사가 일찍 퇴근한다며 어차피 늦게까지 학교에 계시니 동행 출석 상황 부를 제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래 기왕이면 고쳐야 될 것들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에 출석 상황 부 체크를 하면서 동행 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아닌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교는 남학교이고 더구나 학교 부지도 매우 넓은 곳이고, 학교는 물론 교외에서 등 여러 곳에서 봉사자들이 수혜 학생들과의 너무 돈독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사고가 나면 다 헛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나밖에 없다는 사명감까지 마구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로 1학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 자치구를 통한 3년 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대한 업무로 쌓은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동행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동행 활동을 통해 수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비롯해 인성 등 정규수업이 아닌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많은 신뢰를 얻게 되어 입소문이 나서인지 올해인 2014학년도에는 1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수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교실 앞에 있는 텃밭에 다양한 채소들을 유기농으로 기르면서 수혜학생이나 봉사자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텃밭에 초대하여 심신을 이완시키게도 하였으며 함께 물도 주고, 때론 잡초도 뽑으며 대화를 통해 봉사자와 수혜 학생간의 라포 형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2013학년도 2학기 모니터링을 오신 선생님께서도 저의 텃밭을 동행 활동에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했나봅니다. 그런데 동행이란 단어만 나오면 힘들다 이런 말보다는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본교에서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로 배웅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미련할 정도로 제일 늦게 퇴근을 하면서 “왜 저런데? 무슨 승진에 욕심에 뜻이 있나?” 와 같은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은 교사로서 또한 정년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에 대해 부족하게 평가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교직 30여년을 반추할 때 그래도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를 아직한 어린 봉사자 및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밖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라는 답으로 일체의 잡념 없이 동행 프로젝트의 관리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2년 전, 관리교사로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기본교육을 받을 때 강사의 교육 내용 중 감히 하룻강아지인 제가 들으며 느꼈던 동행 활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 및 강의 주제와의 적합성 등 다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메모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간담회라는 것이 있다는 공지를 보고 신청하여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동행 활동을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등을 건의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간담회를 통해 제일 많은 건의 및 시정 사항 등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관리자로서 자부심도 높아졌으며, 또 자원봉사센터 측에서도 즉각 반응을 해주겠다는 호의적인 태도에 많은 위안도 받았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성적이었던 학생들이 1대 1의 학습지도를 통하여 학습도 중요하지만 대학생 봉사자들을 친형이나 선배 등으로 인식하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던 일, 정말 ABC도 모르는 명색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벗어나고 영어의 기초를 알게 된 일 등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동행 프로젝트’의 역량에 제 스스로도 놀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제가 밤늦게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 전교생들의 성격이나 행동들도 너무 잘 알아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들 - 흡연이나 비속어 사용 등 까지도 알게 되어 동료 교사들의 학생 지도의 비행 자료 제공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긍정적인 참고인의 노릇을 하였다는 것 또한 밝히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이해하려는 교사로 말입니다.

앞에서도 동행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행동이 거친 아이들 등 다양한 그들을 그래도 동행활동을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언제나 그들 곁에 있다는 신뢰를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경동고에서의 임기를 마치는 해가 되어 더 이상 경동고에서의 동행은 할 수 없음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더 잘하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름만이 아닌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며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타교로 전출을 가더라도 또 새로운 곳에서 ‘동행 활동’을 담당하는 관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동행 관리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저의 가족은 아직도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음식을 먹으며, 속 깊은 이야기와 함께 청소년의 책무인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린 ‘동행으로 맺어진 가족’ 이랍니다.



리라아트고등학교 교사 윤민정

동행

과의 첫 만남은 걱정 반 설렘 반.

2004년 대학교 2학년 때 모교인 창문여자 고등학교에서 동행과 비슷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모교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졸업한 대학생 선배와 재학 중인 고등학교 후배를 연결 지어 학습지도하는 봉사 활동이었다. 그 당시 1년 정도 봉사를 했었는데 학습 지도 뿐만 아니라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었고 그때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아있다.

2014년 3월, 동행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며 우리학교 학생들도 대학생 선배들과의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 학습 지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좋을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참가 신청을 받고 대학생 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좋은 봉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동행 프로젝트에 잘 참가할 수 있을까?' '관리교사 입장에서는 지원과 관리를 할 때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관리교사로서 대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동행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잘 성장해주리라는 믿음과 설렘이 함께 공존하면서 1년 동안 잘 꾸려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생과 수혜학생의 긍정적 관계형성의 중요성.

다행히도 학교 위치가 동국 대학교와 매우 가까워서 2명의 대학생 모집은 신청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3월부터 동행 프로젝트가 시작 될 수 있었다. 방과 후에 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겁게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대학생 선생님과 관계 형성이 시작되고 점점 친밀해 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지고 대학생 봉사자를 매우 잘 따르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많은 학교의 특성상 동행은 1주일에 한번, 3시간 수업을 하는데 방과 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 사실 학생들에게는 늦은 시간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고 혹시라도 학사 일정 때문에 동행을 하지 못하는 날은 정말 너무 아쉬워했다. 대학생 봉사자들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항상 성실하게 10분전 도착해서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잘 선정해 오셔서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었다.

관리교사로서의 행복함.

대학생과 수혜학생의 관계형성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서로 고민도 나누며 함께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보였다. 관리교사로서 너무나 뿌듯한 것은 대학생들도 봉사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학생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도 동행을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대학생 봉사자들을 멘토로 생각하며 많이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함을 느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 1학기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었다. 동행 마지막 날이라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학생들이 편지라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편지지를 학생들에게 주면서 오늘 동행하기 전까지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미 썼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 파티를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대학생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마지막 준비를 하겠다면서 부탁을 해왔다. 시간이 흐르고 대학생 봉사자들과 수업을 하는 교실로 함께 갔는데 학생들이 풍선도 달고 케이크도 사오고 선생님들의 선물도 미리 준비를 해온 것이었다. 정말 그 순간에 '아, 정말 동행을 하길 잘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생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했구나. 정말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정성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다. 대학생 봉사자들도 예상치 못한 선물과 파티에 정말 고마워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13주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대학생들과 수혜 학생들 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혹은 추억으로 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관리교사로서 한 일이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잘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하였다.

2학기 동행의 새로운 시작!

2학기가 시작되면서 1학기에 동행을 했던 학생들이 다시하기를 원했고, 동행 측에 같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1학기에 했던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이 2학기에도 하겠다고 해주셔서 2개 그룹 중 1개 그룹은 같은 선생님과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한 다른 대학생 봉사자도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 와주셔서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선생님이 1년을 쫓지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 익숙한 상태에서 다시 동행을 시작하니 더 관계형성이 깊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2학기 현재도 동행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학생도, 대학생 봉사자도,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위해 관리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동행, 봉사자-수혜학생-관리교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행, 서로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리라아트고등학교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연구부(교무업무 2팀) 기획을 맡아 여러 가지 학교 행정 관련 일들을 맡으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동행프로젝트’라는 일을 함께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분으로부터 2월에 급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걱정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중에 실시된 ‘동행

담당자 업무 연수’를 신청해서 들으면서 막막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동행담당자 분이 친절하게 할 일들을 책자를 통해 설명해주셨고, 오랜 시간동안 동행프로그램을 맡아 직접 운영하시는 행당중학교 최광준 선배 교사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움이 되는 파일까지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광여고 교사 김지민

올해 1학기에는 9명의 대학생 선생님이 모집되었습니다. 영어 교사 3명, 수학 교사 4명, 음악 교사 1명, 미술 교사 1명을 모집해서 수혜 학생 14명과 함께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생 모집 기간 동안 동행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끊임없이 들어가서 신청한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좋은 요일과 시간을 물어보았고, 3월에 동행프로젝트 수혜 학생을 신청 받아 선생님들의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생들이 동행프로젝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었던 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동행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수업 시간을 짰 뒤 첫 수업을 받은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하나하나 물어보았고, 교실 섭외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쯤인 5월쯤 수혜 학생들을 불러 수업 만족도 중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설문 문항을 직접 만들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및 불편함이 없는지를 물어보아 학생들이 동행 수업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그 당시 참 많이 뿌듯함을 느꼈고, 아이들이 공부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 더욱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행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참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간식이었습니다.

간식을 전 달 말에 주문하고 매일매일 간식을 개수에 맞춰 챙기고 돈을 아껴서 김밥을 주문해서 들고 오는 일이 비록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간식이 있어서 좋다는 아이들 그리고 김밥 때문에 저녁에 너무 감사했다고 보내주는 대학생들의 문자에 이런 간식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빌려주시는 선생님들과 주위 선생님들께 작은 간식이지만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작은 기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 협의회를 통해 대학생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이과반 학생들 2명(배운진, 이혜원)과 과학에 선생님(숙명여대 수학과)의 수업이 매우 잘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통해 과학에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과학에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시고 수업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기에 아이들을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9월이 아닌 8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수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선생님께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2학기에 또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업이 매우 잘 진행되는 것을 안 이과반 학생 한명(임혜민)이 추가로 신청되어 3명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이 1학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좋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1학기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 좀 더 동행 프로젝트를 키웠습니다.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학교 공부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안내하여 신청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대학생 수혜 교사 19명(수학 5명, 영어 8명, 음악 4명, 미술 2명)과 수혜 학생 31명으로 늘어났고 좀 더 체계적인 전달과 만남이 필요해서 1달에 한번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만족도 조사도 하고 중요한 전달 사항 및 불편 사항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모임에 학년 대표와 간식 및 출석부 챙기기 담당을 요일별로 나누어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중간고사 전과 중간고사 후로 2팀으로 만들어 간식 및 출석부를 챙기기로 하고 수업 교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부탁하였고 따로 자료로 만들어 전달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때도 수업에 대한 결손 및 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특이 사항이나 미리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담임선생님들께나 상담 선생님께 미리 물어보아 대학생 한분 한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수업해야 하는 경우 수학과 영어 선생님들께 일일이 여쭙어보아 성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하여 팀을 짜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동행프로젝트를 받고 싶다고 마지막 3차 모집 기간에 찾아왔는데 이과 수학의 경우 대학생 봉사자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과외나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아이라 더욱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3차 모집 마지막 날 마감시간 전에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과 수학을 신청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성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전화를 바로 했더니 봉사점수 때문에 아니라 그냥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받아서 바로 야간자율학습실에 있는 학생에게 찾아갔고 그 학생도 정

말 기뻐서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그 학생은 매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교사로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망치고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불러서 상담을 했더니 정말 수학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라며 너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지혜 선생님이 떠올랐고 그 선생님 같으면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대고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요일로 와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지금 그 학생도 수업을 잘 받고 있고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그 학생이 동행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용기 있게 시작하는 것 입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2학년 장하은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수학 다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동행 덕분에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동행프로그램 때문에 백점을 맞지는 않았겠지만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행 프로젝트! 이것은 학교의 동생행복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고 대학생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 또한 함께 자라는 프로그램임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다 좋은 때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월 말 한 학생이 저녁에 제게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선생님의 영어 해석이 이상할 때도 있고 해석할 때 영어 단어가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전화를 했고, 그 대학생 선생님이 다른 학년의 두 팀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 선생님께 솔직히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착한 대학생 선생님께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게 느껴져서 수혜 학생에게 수업 전에 과자를 따로 주면서 선생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이 마친 후 그 수혜 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매우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오셔서 무척 감사했고 이렇게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한번 보았는데 그 대학생

선생님이 그 학생이 따로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생과일주스를 2개 준비해 오셔서 학생에게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 대학생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대학생들의 마음 또한 한층 자라나는 모습이 관리교사로서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동행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학교에 큰 도우미 제도로 잘 정착하고 잘 발전되도록 관리 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락드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과 힘든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동행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동행프로젝트 최고입니다!



용답초등학교 교사 이아람

서울 용답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 특별 지원사업 맡고 있는 교육복지사 이아람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타 학교에 비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많아 그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문화, 복지 부분을 케어 해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동행프로젝트를 알게 된 후 학교에 동행프로젝트 대학생들을 통한 멘토링 학습, 정서 관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 드렸으나, 처음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 해에 1년 정도 동행을 해보셨다가 대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것 같아서 실망하여 중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다시 운영해보겠다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설득해보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 한명의 아이가 변화된다면, 큰 성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초등돌봄교실과 도서실, 학습부진교실 등에 각각 동행 멘토 대학생들을 배치하고, 그 학생들과 1:1 멘토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좀 더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학교만의 봉사활동 규정으로 학교 자체 봉사평가(A,B,C,F) 등급을 봉사활동 후 반영하여 F일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몇 개월간의 동행 대학생들 통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습부진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30점대에서 80점대로 크게 향상 되었고, 학생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산만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에서 차분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향으로 성격이 변화된 점, 초등돌봄교실과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 지도 선생님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학교에서는 본 동행프로젝트 대학생 멘토링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저희 서울용답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많은 대학생 멘토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라도 변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복잡하고 어려운 전자 기기들 보다, 사람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이 처음엔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셨다하더라도 만약 한 학생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살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이고,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 시킬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행프로젝트가 우리 멘티 학생들에게 또 대학생 멘토들에게, 또한 저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인생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 조예진

매주

화요일, 주연이와 재선이와 함께 교육지원실에서 수학공부를 합니다. 벌써 7번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연이와 재선이 뿐만 아니라 제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반아쓰기 연습시험에서 30점을 받은 주연이가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연이에게 다가가 “오늘 선생님 이랑 본 시험은 연습이니 괜찮다”고 위로하니 그때서야 일어나서 틀린 것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멘토링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루를 되짚어 보니 주연이에게 했던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연습이야’

윗글은 동행 멘토링 사례회의 및 중간평가 자체보고서를 쓴 대학생 멘토의 자체보고서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멘토링 사업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인생으로 엮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봄, 고등학교에 진학해 시험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걱정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 중3이었던 그 학생은 이혼 가정의 아이였고 반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 도움으로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작년보다 10cm나 큰 꽃님이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노원구에서 동대문구까지의 먼 거리를 달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꽃님도 멘토링사업을 통해 공부 방법을 알게 되어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지금도 멘토링에 참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로 옮기고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는 멘토링이 맞지 않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의 효과를 이미 작년에 중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경험한 저는 부장, 교감선생님을 설득하여 동행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대학생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가 한참 지난 요즘, 어떻게 하면 대학생선생님을 만나 공부할 수 있냐며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에게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4학년 여학생의 어머니는 “멘토링을 한 달 경험하고 나니,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여 잔소리가 필요 없어졌다”고, 아이에게 공부에 흥미를 붙여주어 감사하다고 제게도 대학생 멘토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과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주일에 1회씩 만나는 동행 멘토링에 대해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날개 접은 천사, 멘토를 맞이하는 관리담당인 지도, 멘티로 참가하는 우리학교 아이들도 일주일 기다리며 날개 접은 천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가끔, “갑자기 일이 생겨서...” , “학과에서 중요한 일 때문에...” 라고 말하며 멘토링에 참여를 하지 못할 때의 멘토들의 미안해하는 모습은 제 자신 스스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세우고 대학생 멘토들을 격했습니다.

중간평가회의에서 관리담당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을 써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다음처럼 썼습니다.

“제가 동행프로젝트에 2년째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곡초등학교 꿈아울터 조예진 선생님처럼 봉사자를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신 분은 처음이라 놀랐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맛있는 것 항상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저희들 편의를 항상 우선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교사분이 무신경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행운이네요!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선생님은 정말 바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즐겁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쁜 멘티도 만나고....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업환경이나 다른 외적인 것에 모두 만족해서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잘해주십니다. 정말로, 이번이 담당선생님과 두 번째 인연인데, 우연이 아니라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낮선 학교에서 멘토링하려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고마움을 표시해주고 날개 접은 천사들이 칭찬을 해주니, 멘토링 관리 담당을 신명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도 성장하고 멘토링을 참여하는 대학생 자신들도 성장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관리를 담당하는 저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동생들에게 선생님이로 다가가 자신의 성장을 비추어보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는 정말 값진 인생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동행 멘토링 프로젝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열정과 봉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날개 접은 천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청중학교 교사 방유정

저는 대청중학교에서 동행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교사 방유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동행프로젝트에서 독서지도와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독서지도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상설동아리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는 학생들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서로 5~6명의 그룹을 형성하여 책을 읽고 매주 1회 방과 후에 1시간정도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추천도서나 학생들의 희망도서를 중심으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사전 활동으로 A4용지에 내용, 느낌, 주제를 3~4가지를 적어옵니다. 그리고 각자 써온 토론 주제 중 4~5가지 정도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토론, 토의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경청하는 법을 배우며 독서 후 활동을 통하여 감상문, 편지쓰기, 마인드맵, 책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습관을 들여 함께 소통하는 리터십을 기르게 됩니다.

학기 초에 독서동아리 모집을 진행하여 1학년 4개 동아리, 2학년 4개 동아리, 3학년 11개 동아리로 총 95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기쁘기도 하였으나, 각 동아리 마다 한 명의 지도교사가 필요하여 국어과 선생님 8분만으로 모든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하여 모집을 신청했고, 각 팀당 한명의 대학생봉사자를 신청하여 총 19분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분이 신속히 모집되었으나 각각 출신학교나 전공이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잘 소통해주시고 독서 토론에 맞는 활동을 원활히 해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행 측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교육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 학교 측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기본 교육을 잘 받으신 대학생 봉사자선생님들께서는 열정적이고 성실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선정한 도서를 읽어 오셔서 학생들이 함께 적어온 주제로 독서토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독서퀴즈를 만들어 오셔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시고 학생들이 답을 맞으면 직접 문구류나 사

탕을 사와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으로 주기도 하시면서 열정적인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도서를 읽고 토론을 하며 자신의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대학생 선생님들 및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동행프로젝트의 예산으로 간식을 다양하게 구입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매 시간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답소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이나 꿈을 나누기도 합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 하며 학생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며 대학생 선생님들께 위로를 얻고 또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행프로젝트가 단순히 동생행복(수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봉사 대학생과 학교 선생님들, 나아가 학교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혜학생들은 단순히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예쁘고 멋진 대학생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며, 더욱 친근한 환경에서 동아리를 진행할 수 있고, 봉사자 대학생은 봉사를 하며 보람을 얻고, 스스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능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한 단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으나 여러 동아리를 맡아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좀 더 집중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 할 수 있게 되며, 학교 입장에서 학교가 교육해야 할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교사들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대학생의 재능기부와 나눔의 결심이 학생, 교사, 학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윈!윈!윈!'의 행복전파로 이어지게 되는 작은 불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학교도 1학기 때는 많은 대학생봉사자들이 지원해주지 않아서 단 두 분만 모시고 진행 하는 등 동행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동행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체계적인 운영방식과 구성을 통해 재 모집을 했고 현재는 약 20명 정도의 대학생 봉사자들께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시며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생선생님들께 보고 배운 대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또 다른 학생과, 또 다른 교사, 또 다른 학교를 행복하게 해주겠지요?

이렇게 점점 행복이 전파되도록 도와주는 동행프로젝트! 앞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관리교사로서 행복을 전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송파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동현

22살의 청년이 버스를 타고 국립재활원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려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자신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막상 처음 기관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담당자님의 안내를 받아 간 곳에는 지체 장애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나이는 저보다 많은 20대 후반의 형님이었고, 어린 저에게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능세대로 수리영역에 관심도 있어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딱 맞아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학습의 동료로 즐겁게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6개월 남짓의 시간을 공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보았는데,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3년에 걸쳐 준비하는 과정을 몇 개월로는 쉽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그분의 도전은 자신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의 시작을 그 분과 함께해서 봉사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봉사할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봉사시간이 쌓이면서 저마다 다른 감성을 가지게 되지만, 봉사를 통해 느끼는 나눔의 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작은 일에서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2014년 2월 교감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동행 봉사 관리교사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동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행(同行),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지옥에서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눈부신 빛과 같은 것이지요. 학생들이 공부방에 와서 저녁9시까지 공부를 하고 갑니다. 학생들이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때문 도망도 가지만, 학창시절에 가장 편안한 곳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 이야기 해주곤 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부방이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학생들을 지원하며 오늘도 늦은 밤 학교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퇴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교사 박정재

어느덧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6년째이다. 올해는 그 동안 몸담고 일하던 ‘방과 후 창의 체험부’를 떠나 학생들의 취업과 전공분야의 역량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취업실과부’ 업무를 맡게 되었다. 더 많은 업무로 학교생활이 무척 바빠졌지만 해마다 이어온 봉사활동에 대한 욕심으로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안 꾸준히 마포구청 및 관내 노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해왔던 터라 올해도 ‘구립우리마포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서강주민센터와 창전경로당으로부터 장수사진 촬영 요청을 받아 4개 기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공사와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복지관이 용이 어렵게 되어 서강주민센터 강의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의실이 복지관보다 좁아 위문공연은 포기하고 장수사진 촬영만하기로 했다. 위문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쉬웠지만 수년간 함께 행사를 해온 경험에 있어 촬영하실 어르신들을 시간별로 배정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그 동안 장수사진 봉사를 통해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점은 1학년 때 참여했던 학생이 3년간 꾸준히 참여하고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에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장수사진 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기획봉사 준비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봉사활동 전반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이번 봉사를 통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봉사활동의 리더로 성장하길 내심 기대하며 참여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2014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봉사활동 수기집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생!

동행 사업보고서

[동생행복도우미]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생!

동행 사업보고서

[동생행복도우미]

○ 사업소개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봉사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재능 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대학생

- 동행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 기회 제공
- 자신의 전공 혹은 특기 연계 봉사를 통한 재능 나눔 자원봉사 영역 확대

초·중·고교·특수학교 및 그 외 수요처

- 자원봉사자들의 학습지도 등 도움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
- 공부방, 돌봄교실 등에서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분위기 조성

초·중·고교·특수학교 및 그 외 수요처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

-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학습지도를 통한 배움의 즐거움 경험
-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어울림 속에 자연스런 학습 효과 증진

학부모

-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자녀들을 돌봄으로 가정에서 안심하고 참여
- 대학생들 학습지도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업개요

사업시기

- 2013. 3~6월(1학기), 9~12월(2학기), 여름 및 겨울방학
- ※ 방학 중 활동을 희망할 경우 별도 공지 후 신청

봉사장소

- 서울 소재 초·중·고교 및 건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 예외 : 체험학습, 기획봉사의 경우 사전 지정된 수요처 외 장소도 가능

대상

- 대학생 : 동행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및 휴학생
- 수혜자 : 서울 소재 초·중·고·특수학교 및 건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생

봉사시간

- 1회당 최소 2시간 ~ 최대 6시간, 학기별 40시간 이상 활동
- ※ 체험학습 및 기획봉사 프로그램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

대학교 봉사자 신청 가능 인원

- 학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1개교(기관)당 최대 25명까지 대학생 지원 가능
- 지역아동센터 : 1개(기관)당 최대 3명까지 대학생 지원 가능

봉사 프로그램

- 7개 분야

활동분야	활동내용
교과목 학습지도	- 개별 또는 소그룹 학습지도(국어,영어,수학 등)
특기적성 지도	- 예 체능, 컴퓨터, 밴드활동, 바둑교실, 독서교실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체험학습 지원	- 음악, 미술, 체육, 독서지도 등
기초학력향상지원	- 체험활동 준비, 진행, 해설, 안내 등 지도교사 활동 보조
초등학교 돌봄교실	-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개별 또는 그룹 숙제 학습지도 - 실내 외 신체활동 지도 및 보조
기획봉사	- 개별 또는 그룹 학습지도, 자기주도학습 지원 - 문화체험활동 보조
	- 대학생과 수혜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 연1회 공모, 1팀당 200만원 이내 지원

○ 동행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안내

대학생 인센티브

- 동행봉사단증 및 동행활동복 제공
-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대학 사회봉사학점 연계(일부대학 제외)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 ※ 동행 우수봉사자 기본조건 학기별 40시간 이상 봉사
- ※ 기본교육 이수자 및 개인사유로 인한 조기종료자(중도포기자)는 제외
- 서울시장명의 활동 인증서 발급
- 우수봉사자 시장 표창

관리교사

- 동행 관리교사 지도비 지급 : 학기별 20만원 지급
- 우수 관리교사 및 수요처 시장 표창

○ 2013년도 학기별 운영방식 변경사항

구분	2013년 1학기	2013년 2학기
변경 내용	체험학습 및 기획봉사프로그램 1일 최대 봉사시간 6시간 인정	체험학습 및 기획봉사 프로그램 1일 최대 봉사시간 8시간 인정 서울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야간 돌봄 시간 연장(22시) 운영 시, 봉사자 식식비 학교 자부담 처리
신규 추가 사항		○ 동행프로젝트 운영 관리 강화 <운영비 지원·봉사자 관리 등 문제 발생 시 단계별 조치 강화> - 1차 : 오류 사항 안내 및 경고 - 2차 : 봉사자 배치 인원 축소 - 3차 : 한 학기 동행 참여 제한

○ 사업개요

○ 추진체계

주최 : 서울특별시

협력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

1. 사업소개 2. 추진체계 3. 참여방법
1. 사업소개 2. 추진체계 3. 참여방법

○ 동행 참여방법

I 대학생

회원 가입
(상시)

- 회원가입시 “대기회원”임
- 대학 및 센터 담당자 승인 후 “활동회원”으로 변경
- 부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 미등록 “보류회원”
- 활동회원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신청 가능

자원봉사 프로그램
검색 및 선택
(2~3월 / 8~9월)

- 희망하는 봉사 프로그램 검색 후 인터넷 신청
- 로그인 > 나의정보 > 봉사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 확인
- 배치(승인) : 신청한 봉사활동으로 배치 완료

봉사자 사전 교육
2~3월 / 8~9월

- 희망하는 봉사 프로그램 검색 후 인터넷 신청
- 로그인>나의정보>봉사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 확인
- 배치(승인) : 신청한 봉사활동으로 연결 완료

개별 연락
(학기초)

- 동행 참여 대학생이 봉사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
(동행봉사활동 중 1회만 이수)
- 교육시간 3시간이며, 봉사시간으로 인정
- 신청내역 > 기본교육 및 독감예방접종 교육신청

교육현장 별 O.T
(학기초)

- 신청한 교육현장에서 배치된 대학생들에게 연락
- 배치된 교육현장 안내 및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O.T
-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 보안 및 활동에 대한 서약

봉사활동시작
(3~6월 / 9~12월)

- 봉사활동 중 변동되는 사항은 배치된 교육현장 동행 관리교사와 상의 후에
변경가능(단, 변경 2~3주전 상의)
- 활동 중 배치 교육현장별 또는 대학(교)별 간담회 참석

봉사활동종료
(6월 / 12월)

- 홈페이지를 통한 “동행봉사활동 온라인 평가” 실시
- 동행 관리교사에 의한 대학생 평가(평가결과 대학 송부)

I 수요처

학교 신청 접수
(2월 / 7월)

- www.donghaeng.seoul.kr에서 수요처 회원가입
- ※ 상세내용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학생 봉사자 개별연락
(3월 초 / 9월 초)

- 대학생 신청기간 : 2월~3월/8월~9월~배치종료시까지
- 배치된 대학생 개별 전화 연락 (봉사시작일 및 미팅장소 안내 등)

운영비 신청
(3월 / 9월)

- 신청기간 : 학기 초
- 내 용 : 대학생 배치인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
- ※ 상세내용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교육현장 오리엔테이션 실시
(3월 / 9월)

- 교육현장 안내 및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O.T
-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 보안 및 활동에 대한 서약
- 봉사자에게 소요되는 교재 및 문구를 수요처서 및 구입

봉사활동시작
(3월~6월 / 9월~12월)

- 봉사자 및 수혜학생 출결관리
- 봉사시간 홈페이지 실적 입력 (격주 1회 입력)

기획봉사활동 (학기초)
(3월~6월 / 9월~12월)

- 프로그램 실행 계획서 접수 및 선발(4월)
- 선발된 교육현장 기획봉사 실시(5월~11월 사이)

모니터링 실시
(5월 / 11월)

- 대 상 : 신규 및 기존 교육현장 중 희망하는 곳
- 내 용 : 동행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애로사항 청취 등

마무리 및 평가회
(6월 말 / 12월 말)

- 수혜학생 및 관리교사 만족도 설문작성 및 자원봉사센터로 송부
- 대학생별 봉사활동실적 최종 확인
- 동행 운영결과보고 및 운영비 정산서 제출
- 동행 최종 평가회(관리교사, 대학생) 실시

대학생봉사활동평가
6월 말 / 12월 말)

- 대학생 봉사활동 홈페이지 평가등록
- 성실도 및 책임성(1~10점, 주관적 평가 서술형으로 기입)

총괄평가

1. 사업실적 총괄표 2. 주요사업실적 3. 주요성과
1.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 총괄표

○ 단위사업별 실적

사업명			1학기		2학기		계	
			현 황	횟수	현 황	횟수	현 황	횟수
수요처 운영 관리	수요처		806개소	-	866개소	-	1,672개소	-
	대학생		6,419명	-	6,291명	-	12,710명	-
	수혜학생		32,718명	-	28,709명	-	61,427명	-
	운영비지원(원)		523,338,900원	-	493,154,440원	-	1,016,493,340원	-
	모니터링		181개	-	150개	-	331개	-
	간담회		64명	2회	51명	2회	115명	4회
	기획봉사		28개팀 지원 49,964,100원	-	-	-	28개팀 지원 49,964,100원	-
수요 맞춤형 교육	관리자 직무교육		513명	5회	273명	4회	786명	9회
	사업설명회		9명	1회	-	-	9명	1회
	대학생 기본교육		4,540명	21회	4,225명	19회	8,765명	40회
	대학생 특강		1,013명	5회	945명	5회	1,958명	10회
동행 봉사단 운영	발대식		640명	1회	-	-	640명	1회
	그루터기 및 홍기단 워크숍		83명	1회	152명	2회	235명	3회
	간담회		662명	10회	635명	10회	1,297명	20회
	그루 터기 운영	회의	265명	16회	246명	16회	511명 (실인원 69명)	32회
		staff활동	319명	36회	241명	35회	560명	71회
		홍보활동	150명	20회	127명	13회	277명	33회
	동아리		3개교 지원 3,960,000원	-	24개교 지원 26,958,500원	-	27개교 지원 30,918,500원	-
	대학 사회봉사 담당자	간담회	-	-	-	-	-	-
		워크숍	-	-	19명	1회	19명	1회
	국내·외봉사활동		-	-	-	-	-	-
	문화나눔				2,444명	10회	2,444명	10회

사업명			1학기		2학기		계	
			현 황	횟수	현 황	횟수	현 황	횟수
동행 봉사단 운영	인 센 티 브	봉사단증	4,751명	-	4,531명	-	9,282명	
		시장표창	47명	1회	-	-	47명	1회
		시장인증서	3,167명	1회	3,112명	1회	6,279명	2회
		상해보험	6,000명	1회	6,000명	1회	12,000명	1회
홍보사업	인 쇄 물	포스터	1,500부	1회	1,500부	1회	3,000부	2회
		리플릿	11,000부	1회	11,000부	1회	22,000부	2회
		현수막	20개	1회	23개	1회	43개	2회
		지하철 모서리광고	2,264면	1회	577면	1회	2,841회	2회
	홍 보 물 품	포스트잇	11,000개	1회	-	-	11,000개	1회
		지퍼파일	-	-	-	-	-	-
		볼펜	-	-	-	-	-	-
	언론보도		26건	-		19건	45건	-
	홍 보 기 획 단	홍보회의	100명	5회	61명	3회	161명	8회
		홍보교육	7명	1회	6명	3회	13명	4회
		사례발굴	-	-	-	-	-	-
		블로그 컨텐츠등록	30건	-	64건	-	94건	-
		뉴스레터발송	-	-	-	-	-	-
	사업관리	봉사활동사례집		-	-	-	-	-
사업보고서		-	-	-	-	-	-	
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계약	1회	-	-	유지보수계약	1회

○주요사업실적

○전체 참여현황

1,672개의 수요처에서 대학생 12,710명이 61,427명의 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함

구분	계	1학기	2학기	증감
대 학 생	12,710명	6,419명	6,291명	△128명
수 요 처	1,672개	806개	866개	60개
수혜학생	61,427명	32,718명	28,709명	△4,009명

○대학생 참여현황

운영현황

1학기 대비 2학기에 대학생 참여인원은 128명 감소하였으나, 재참여 인원 1인당 평균 활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함

구분	계	1학기	2학기	증감
참여인원	12,710명	6,419명	6,291명	△128명
40시간 이상 봉사자	6,277명	3,166명 (참여인원의 49%)	3,111명 (참여인원의 49%)	△55명
자원봉사 총 참여시간	507,737시간	251,719시간	256,018시간	4299시간
1인당 평균 활동시간	39.9시간	39시간	40시간	1시간
경제적 가치	2,467,601,820원	1,223,354,340원	1,244,247,480원	20,893,140원
재참여 인원	3,509명	1,499명 (참여인원의 23%)	2,010명 (참여인원의 31%)	511명
참여 대학 현황	225개교 (서울소재 97개교)	119개교 (서울소재 49개교)	106개교 (서울소재 48개교)	△13개교

※자원봉사 참여시간 경제적 가치 산출 : 2013 노동부 산정 최저 임금 기준 시간당 4,860원 적용

만족도 현황

전반적인 만족도는 83.5% 수준이며, 봉사단원으로서의 보람은 2학기에 2% 증가

만족도 문항	평균	1학기	2학기	증감
전박전인 만족도	83.5%	83%	84%	-
봉사단원으로서의 보람	84.0%	83%	85%	-
지속적 참여 여부	82.0%	82%	82%	-

※ 만족도는 응답내용 중 그렇다와 매우그렇다로 응답한 수치만 합산한 것임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전체 참여인원은 1학기에 비해 96명 증가하였으나 기획봉사에서 224명이 2학기로 등록되어 나타난 수치임. 기획봉사를 제외하면 128명이 감소하였으며 특기적성이 4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지원 36명, 체험학습 30명, 교과목 23명 순으로 나타남.

봉사활동 분야	계	1학기	2학기	증감
계	12,944명	6,419명	6,515명	96명
교과목학습지도	5,677명	2,845명	2,822명	△23명
특기적성	1,249명	645명	604명	△41명
체험학습	576명	303명	273명	△30명
기초학력 향상지원	1,954명	995명	959명	△36명
초등돌봄교실	2,835명	1,420명	1,415명	△5명
중학교방과후공부방	429명	211명	218명	7명
기획봉사	224명	-	224명	224명

총괄평가

- 사업실적 총괄표
 - 주요사업실적
 - 주요성과
- 사업실적 총괄표
 - 주요사업실적

○ 주요사업실적

○ 수요처 참여현황

수요처 유형별 현황

수요처 중 학교의 경우 1학기 대비 40개교 증가, 지역센터는 19개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참여기관은 증가하였으나 수혜학생의 경우 학교는 3,420명 감소하였으며 지역센터는 589명 감소하였음.

구분		수요처 / 수혜학생				
		계	1학기	2학기	증감	
계		1,672개	806개	866개	59개	△4,009
학 교	소계	1,366개	663개	703개	40개	△3,420
	초등학교	691개	330개	361개	31개	△1,537
	중학교	411개	197개	214개	17개	△1,105
	고등학교	232개	121개	111개	△10개	△518
	특수학교	32개	15개	17개	2개	△260
소계		306개	143개	163개	19개	△589
지 역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	5개	5개	-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1개	1개	-	△63
	대안학교	17개	8개	9개	1개	209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2개	3개	1개	△177
	지역아동센터	271개	127개	144개	17개	△542
	휴 카 페	1개	-	1개		9

※ 2013년 신설 수요처 : 휴카페

요청봉사인원 대비 대학생 배치현황

1학기(77.4%) 대비 2학기(91.4%) 배치율은 14% 상승

봉사활동 분야	1학기			2학기		
	요청인원	배치인원	배치율	요청인원	배치인원	배치율
계	8,290명	6,419명	77.4%	6,862명	6,291명	91.4%
교과목학습지도	3,637명	2,845명	78.2%	3,031명	2,822명	93.1%
특기적성	917명	645명	70.3%	730명	604명	82.7%
체험학습	490명	303명	61.8%	350명	273명	78.0%
기초학력 향상지원	1,365명	995명	72.9%	1,041명	959명	92.1%
초등돌봄교실	1,599명	1,420명	88.8%	1,490명	1,415명	94.9%
중학교방과후공부방	282명	211명	74.8%	220명	218명	99.1%
기획봉사	-	-	-	-	224명	-

※ 기획봉사는 제외

만족도 현황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적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6%상승하였으며
지속만족도는 1%하락하였다.

만족도 문항		평균	1학기	2학기	증감
수혜학생	대학생 선생님과의 공부 또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78%	78%	78%	-
	동행 참여로 인한 성정이 향상 되었다	55%	52%	58%	6%
관리교사	동행이 수혜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94%	94%	94%	-
	동행은 지속되어야 한다	95.5%	96%	95%	△1%

※ 만족도는 응답내용 중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응답한 수치만 합산한 것임

※ 수혜학생 만족도는 참여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 주요성과

○ 운영 성과

대학생 자체 활동 강화를 통한 소속감 및 동기부여 강화

대학 내 동행 동아리 육성 지원을 통해 동행봉사단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속 대학교 봉사단들과 교류를 이끌어냄 : 27개교 850여명 활동
동행봉사단 대표(그루터기) 모임의 자체활동 강화
동행 참여저조 대학 방문 설명회, SNS 사진 공모전, 축제 시 동행 부스 운영 등

사업의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관리교사 지도비 정산, 기초학력향상지원, 동아리운영 관련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대학의 전반적인 사회봉사는 하향세이나 동행은 안정적인 상향세

자료가 유용한 42개 대학 중 36개 대학은 사회봉사 하향세이나, 서울동행 참여 55개 대학 중 상향세의 대학은 50개 대학으로 나타남(연구사업 중간보고회 자료 발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초학력향상지원(13년 신규) 분야 및 관리교사 지도비의 운영방식 변화 필요

기초학력향상지원의 경우 참여 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족도 저하 지도의 어려움 66%, 만족도는 52%

사유 : 수혜학생이 학습 의욕이 떨어져 집중을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음
관리교사 지도비의 경우, 13년 2학기부터 정산 실시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비와의 사용 항목 중복 및 행정업무 증대로 인한 지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 요구 증가

관리교사 지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 프로그램 운영비 증대

- ▶ 관리교사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교부지침 및 사용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 운영비와 별개로, 통신비 관련 수요처 관리자 모드에서 문자 발송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한 참여 조건 강화

- ▶ 수요처의 경우, 관리교사의 슈퍼비전 필수 및 집단지도(대학생 1인당 최대 3명까지) 불가
관리교사의 슈퍼비전 : 수혜학생 및 대학생 모두에게 기초학력향상지도에 대한 기본 커리큘럼 제공 및 주기적인 출석 관리 및 피드백 제공
- ▶ 대학생의 경우, 교직 이수 및 관련학과 학생이 참여하도록 안내

대학의 전반적인 사회봉사는 하향세이나 동행은 안정적인 상향세

자료가 유용한 42개 대학 중 36개 대학은 사회봉사 하향세이나, 서울동행 참여 55개 대학 중 상향세의 대학은 50개 대학으로 나타남(연구사업 중간보고회 자료 발췌)

○ 2013년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13년	2014년
동행 프로그램 운영	- 7개 활동분야 운영 • 교과목 학습지도, 기초학력향상지원 • 특기적성지도, 체험학습지원, 기획봉사 •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 관리교사 지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구분하여 운영 • 지도비 : 1개 학교당 200,000원 지원 • 운영비 : 대학생 1인당 70,000원 지원	- 7개 활동분야 중 기초학력향상지원 참여 조건 강화 - 관리교사 지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 • 대학생 1인당 90,000원 수요처에 지원
관리교사 협의체 운영		- 수요처 분류별 대표 관리자 협의체 구성(10명 내외) - 수요처의 욕구 및 실정을 반영한 사업 진행
교육	- 대학생 기본교육 : 연 40회, 9,000명 - 대학생 특강 : 연 10회, 3,000명 - 수요처 직무교육 : 6회, 460명	- 대학생 기본교육 : 연 50회, 9,400명 - 대학생 특강 : 연 14회, 4,200명 - 수요처 직무교육 : 6회, 700명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운영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시스템 기능보강 • 사전필터링, 봉사활동 일시시스템 등 - 공공데이터 개방 • 열린데이터 광장 시스템 연계
사례집		- 2년 주기로 동행 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 동행 봉사활동 사례 공모전 실시 - 발간 부수 : 3,800부